사진
–
수수

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 있다

2022.8.20. 서울 인사동 KOTE

유튜브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7ztN4Awb8E

웹페이지 2022metoo.com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 이들

FDSC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다큐멘터리 〈애프터미투〉 프로젝트팀

개회사

사진 – 정운

안녕하세요? '미투운동 중간결산 – 지금여기에있다' 동은, 상아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미투운동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고 무슨 감정과 몸의 반응이 있으신가요? 기획팀은 회의를 거듭하면서 미투운동을 떠올릴 때 굉장히 복잡한 감정, 복합적인 상황, 단일하지 않은 연속적 장면들이 각자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투운동 중간결산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커다란 미투운동의 무게를 개별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의미를 함께 해온 동료들과 꺼내어놓고 한 차례 정리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그만큼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고민 속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 함께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왔고 미투운동 시기에도 피해자를 지원하며 그 시간을 통과해왔습니다. 미투운동 과정에서 변화를 생생하게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미투운동의 경험을 돌아보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싸워온 이들이 있다는 것. 서로 듣고 연결되는 지점을 만들어왔다는 것. 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온, 오프라인에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를 응원하는 환대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앞뒤 동료들과 함께 갑자기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가벼운 목례도 좋고요. 힘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파이브를 해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수줍으신 분들은 서로 마주 보고 수줍게 투쟁을 외쳐 보아요. 투쟁!

동시에 미투운동, 페미니즘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쟁점과 논의, 담론 생산이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성찰이 있어야 할 자리에 혐오가 들어앉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더불어 복잡해지는 불평등과 차별 앞에 있는 우리가 같이 변화를 확인하고, 모순을 드러내고, 전망을 말할 수 있는 자리이고자 했습니다. 필요한 논의가 힘 있게 살아나는 지혜롭고도 사려 깊은 공론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획팀은 오늘의 자리를 통해 미투운동의 위치를 가늠하고, 어떻게 일상에서 함께하고 있는지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를 바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 미투운동이 잘 보이도록, 들리도록 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 FDSC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은 한 줄기 빛처럼 저희의 기획에 멋짐을 더해 주셨어요. 행사장으로 들어오기 전 나부끼는 걸개 장식들을 모두 보셨지요? 각각의 걸개는 미투운동이 건넨 말들 속에서 따왔고 다양한 방식의 증언들은 각 디자이너들의 흥미로운 해석과 함께 시각화되었습니다. 또 오늘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디자인 결과물들은 FDSC 소속 디자이너 분들이 분담하여 맡아주셨습니다. 오늘 행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일부 발언문들은 모두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또한 행사의 의미를 담아줄 온라인 장소와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축제 기획을 FDSC에서 자원해주신 덕분에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첫 공개되는 영상, 〈미투운동 중간결산 : 1,641일 달라진 질문〉은 〈애프터미투〉 다큐멘터리 프로젝트팀이 맡아주셨습니다. 박소현, 이솜이, 강유가람, 소람 감독님은 옴니버스 다큐 〈애프터미투〉를 통해 미투운동 이후 한국 사회에 어떤 질문과 가능성이 놓여 있는지 여성들의 일상과 목소리를 따라가는 작업을 해오셨는데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2017년 #OO내 성폭력, 2018년 미투운동에 참여한 문단 내 성폭력 고발자 X와 최영미 시인의 이야기를 담아주셨습니다. 실패와 승리의 여정을 지나 달라진 일상을 이야기하는 두 분의 말하기가 미투운동의 현재를 여는 좋은 시작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는데요. 작은 반성폭력, 페미니즘 도서전이 1층에 열렸고, 발표와 영상, 전시로 함께해 주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책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피해 생존자로서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 김지은님의 '김지은입니다'와 연대자 D님의 신간도 1층 부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굿즈와 오늘 런칭한 특별한 람지 커피 등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으니 아직 부스 방문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 틈틈이 방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투운동 중간결산 : 지금여기에있다' 행사의 다채로움에 혹시 힘을 얻으셨다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지금이 문득 기쁘다는 생각이 든다면, 필요한 논의 속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되었다면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오늘의 자리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참여자 분들은 행사장 곳곳에 붙어 있는 QR 코드를 통해 모금함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참여자들은 더보기란이나 채팅창을 통해 모금함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영상

미투운동 중간결산 : 1641일, 달라진 질문[1)]

사진 – 정운

#어떻게_시작하게_되었나요?

고발자 X 가해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고 싶었던 입장이었거든요. 이런 해시태그 운동이 있고 우리도 글을 써보면 사람들이 읽어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영미 시인 당시 황해문화가 2017년 겨울호에 젠더 특집을 한다고 하면서 페미니즘에 관한 시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어요.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괴물'이었지.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고은. 고은태.

고발자X 일단 저희는 원래 글을 쓰던 사람들이긴 했으니까 각자 피해에 대해서 편하게 써보자고 했었고 같이 보고 편집해서 트위터에 올리게 됐죠.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정말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SNS니까.

최영미 시인 쓸 때는 겁을 안 먹었는데 쓴 다음에 겁을 먹었어요. 그 EN을 N으로 고칠까 말까. 보내고 나서도 그들이 실어줄지 안 실어줄지 내가 확신이 안 서서 만일 그들이 실어주지 않으면 내가 페이스북에 발표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어주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최영미 시인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

1) 연출_다큐멘터리 〈애프터미투〉 프로젝트팀 촬영_강유가람, 박소현, 이솜이, 소람 편집_소람
타이틀 디자인_FDSC 장지영(크래프톤) 타이틀 모션_이솜이

#지난_시간_어떤_일이_있었나요?

고발자X 글이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게 되면서 형사 고소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사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 가해자에게 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피해 구제는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일단 사회적으로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게 형사 고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미 시인 원고 고은태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잖아요. 나는 완벽한 승리를 했거든요? 재판, 증거, 재판이 너무나 힘들었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주 힘겨웠던 싸움이었어요. 그 1년간이.
고발자 X 막상 만나보고 진술을 하는데 물론 좀 걱정.. 물론 좀 무섭고 긴장된 점도 분명 있기는 했었지만 내가 그때와는 다르다, 내가 피해자로 있었던 그때와, 그때의 나와 이렇게 세상에 얘기를 하고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나온 지금의 나는 너무 다른 거잖아요. 법정에 앉아 있는 가해자를 봤을 때 약간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랬던_것이_있다면?

최영미 시인 이 문단에서 1명이라도 최영미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난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끝까지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1명이 아니라 서너 명이었어요. 나중에 또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런 미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한국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용감한 여고생들의 고발로 인하여 이미 1년 전부터 분위기가, 토대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발자 X 저 개인적으로 일단 후련하죠.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세상에 꺼냈고, 그걸로 일단 형사 처벌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내서 개인적으로는 좀 후련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미투운동_이후_나는?

최영미 시인 옛날에는 내가 어떤 시집을 내자고 하면 거절하더라도 답장은 와. 답은 와. 보낸다고 해도 아예 답이 없는 거야. 내가 알았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문단에서 내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꿈도 꾸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메이저 문단의, 소위 메이저 출판사에 책을 내는 것은. 내가 이 지경인데 그럼 다른 고발자들은 너무나 힘들 거라고요.
고발자 X 일단 저는 그때 이후로 글을 더 이상 쓰지 않고 그냥 지금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화 안에 제가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저에게는 약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해서 엄청 이슈가 많았잖아요. 정말 최영미 시인님처럼 나서서 얘기해 주시는 분도 생기고, 실제로 분위기도 조금 바뀌었다고 듣기는 했어요. 친구들한테.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떠나올 때와는 이제 다른 곳이 되고 있구나.

#변화란_무엇일까?

최영미 시인 근본적으로는 그런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으로 기쁨을 느끼는 남자들이 줄어들어야 해요. 성폭력 가해자를 만드는, 양산하는 문화가 없어야 해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해요. 모든 게.

#"가해자는 몫을 다 마쳤잖아"_라고_하는_이들에게

최영미 시인 이미 벌어진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
고발자 X 피해자한테는 확실히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공동체가 좀 계속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아무리 죗값을 치렀다 한들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계속 유의깊게 서로 봤으면 좋겠어요.

#미투_운동의_의미

최영미 시인 '미투는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건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바꿔나가는 길이죠.
고발자 X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거고, 이렇게 나왔을 때 또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앞에 나서고 했을 때 벅차고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미투_이후_우리는

고발자 X 지금 회사에서도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분명히 성희롱을 하고 누군가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발언은 위험하지 않아요?'라든가 '이런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라든가 슬쩍 말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유, 그런 정도의 아주 작은 힘. 그런 건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전 진짜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존재이고, 누군가는 항상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저 같은 용기를 낼 수도 있으니까 서로 좀 주의 깊게 계속 연대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성찰 빼고 돌아올 때: 가해자 처벌 후 복귀 전, 공동체의 숙제

디자인
–
FDSC
양으뜸

여는 마당

성찰 빼고 돌아올 때 – 가해자 처벌 후 복귀 전 공동체의 숙제

사진 – 정운

사회자　안녕하세요? '미투운동 중간결산 – 지금여기에있다' 여는 마당, '성찰 빼고 돌아올 때 – 가해자 처벌 후 복귀 전, 공동체의 숙제' 사회를 맡게 된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란입니다. 원래 오늘 첫 번째 세션의 진행자는 나임윤경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으로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을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전 모임으로 패널 분들과 함께 뵙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나눠주셨던 질문과 의견을 제가 받아서 오늘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세션 주제는 '가해자의 복귀 그리고 공동체의 숙제, 성찰'입니다. 가해자가 처벌하고 나서 복귀하기 이전에 공동체가 갖고 있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미투운동 이후 다섯 번째 여름, 정치적으로는 두 번의 선거가 지났고요. 이 두 번의 선거를 지나면서 미투운동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심각한 반격, 백래시를 저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4일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출소가 있었고요. 7월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2주기로 여전히 가해자 중심적이고 아주 퇴행적인 담론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가해자가 돌아오는 시간에 과연 주변인들과 공동체들은 어떤 준비를 얼마나 했고 어떻게 했어야 했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그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피해자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는 준비, 어떻게 가능할지 그런 과제들을 구체화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세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일 앞쪽에 계신 안희정 성폭력 사건 증인으로도 역할을 해 주셨던 신용우님,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 나눠주시죠.

신용우 안녕하세요? 저는 안희정 지사의 비서였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직전 수행 비서로서 제가 인수인계를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두 번째 패널로 함께 하실 분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입니다.
장혜영 반갑습니다. 장혜영입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연극계 성폭력 사건들을 많이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성평등 작업실 이로의 이산님입니다.
이산 반갑습니다. 이산입니다.
사회자 그러면 세 분의 이야기를 각각 5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안녕하세요. 방금 인사드렸던 것처럼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증인, 신용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4살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8년 동안 안희정 지사의 비서였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직전 수행 비서로서 제가 업무인계를 한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2018년 3월,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저 또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근무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알려온 사람이 저였고, 저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본인이 조심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항상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고발 소식을 듣고 저 또한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그대로 말하면 8년 동안 아버지처럼 모셔온 안희정 지사의 유죄를 주장하는 일이 되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알면서도 안희정 지사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심 끝에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앞서 저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 운동부 생활을 했었는데 운동부에서의 운동부 감독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러 가며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였고, 하지만 사회는 운동부는 다 맞아가면서 큰다는 인식에 이를 용인해왔습니다. 학부형들 또한 자녀들의 진학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에게 잘 보이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운동부 감독은 괴물과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 권력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운동에 대한 훈련에만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이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선물한 선물과 이메일, 편지 등을 증거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다움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해자를 유죄로 이끄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저에게 너무 유사한 구조로 비춰졌고, 저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고,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린 아이의 어린이집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인물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SNS에 올린 저희 가족사진이 안희정 지사 팬클럽에 뿌려지면서 저희 가족의 안전에 위협을 겪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인지되는 권력에 부딪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피고인 측 증인과 피해자 측 증인이 명확히 갈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대형 로펌과 전관들을 앞세웠고, 다수의 공무원들과 비서진, 또 다수의 지인들을 증인으로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하는 피해자 측 증인에는 그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에는 증언을 하기로 했다가 재판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증언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한 일도 있었고요. 또 한 증인은 유능한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선 이후에 정치계에서 알 수 없는 해고를 반복해서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증인을 해고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최고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은 재판에 나섰다가 무죄로 결론 나기는 했지만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당하며 고초를 겪어야 했고, 또 다른 증인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진실을 증언하겠다고 피해자 측에 서서 증언을 했던 증인들은 증언 이후로 순탄치 못한 삶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희정이 살아야 자신의 출세길이 보장됐던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운동급으로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증인은 안희정 지사와 일을 해 보고 싶어 충남도청 채용공고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하였습니다. 이 증인은 국회에서 약 10급 상당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증인은 피해자가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동료였고, 때로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사이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 대화 내용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하게 증언했습니다. 그 이후 이 증인은 10급에서 국회의원 비서관 5급으로 5단계를 초고속으로 승진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되어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 한 증인은 충남도청 비서실에 고작 수개월 근무해놓고 비서실의 근무 내용과 수행비서의 직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며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증인은 인터넷 뉴스 기사에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다니다가 적발되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처벌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이 인물 또한 한 민주당 구청장이 있는 지자체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모론을 생산해냈던 한 증인은 아직까지도 공기업에서 홍보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이렇게 수많은 피고인 측 증인들은 대전시 산하 기관장을 비롯해 정부 기관 곳곳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승승장구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권력에 조아리고 빌붙었던 사람들이 더 빠른 출세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라고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일이 권력에 부딪치는 일이라면 권력에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권력에 빌붙어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앞장서 행동하면 상을 받듯 돈과 명예를 가질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세력들은 온갖 괴롭힘을 삶에서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정의를 이야기하는 일이 권력에 부딪치는 일이라면 누가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가부장적인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권력의 비열함은 더욱 가열찼습니다.

사진 – 정운

저는 안희정 지사와 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하고 이제 분리된 지 5년이 되어갑니다. 저의 청춘을 모두 바친 8년의 세월을 이력서에 한 줄 넣지 못하고 공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갓난쟁이들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갓난아이들을 돌보는 일 때문에 맞벌이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트럭을 하나 사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닭꼬치를 팔았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닭꼬치를 팔면서 정말 힘들었던 일은 육체에서 오는 피로함이 아니라 마치 안희정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서 숨어서 사는 인생으로 비춰지고 실패한 인생으로 비춰지는 것이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라 생각하더라도 권력에 조아리고 그들이 원하는 일에 앞장서 행동하면 잘 먹고 잘 살면서 성공할 수 있고, 불의를 불의라 말하며 권력에 부딪치면 실패한 인생을 산다는 인식을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누가 떳떳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열심히 일하며 공정 경쟁을 통해 성공을 쟁취하려 하겠습니까?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개인이 개인에게 저지른 범죄를 뛰어넘어 권력과 그의 무리들이 개인과 진실의 편에 선 사람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공격하고 짓밟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의 그런 프레임으로 아직도 진실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중 다수가 피고인의, 가해자의 측근들이고 그들의 가족들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 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권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공동체로서 도의적인 책임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 제명이라는 꼬리자르기 식의 책임회피성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은 2차

가해에 앞장서고 그의 무리들로부터 마치 상을 받듯 취업을 구걸하는 그들에게 당은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차 가해에 앞장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고 보호해 줬던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 조사하여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희정 지사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지난 시간들을 다 복기해 보시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안희정 지사의 참모진들과 그의 지지자들은 악의적인 여론을 형성해 아직도 피해자를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안희정 지사와 가장 오랜 시간을 지낸 저로서는 이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때 페이스북의 입장 그대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본인의 과오를 되돌아봤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판단을 하도록 조언한 일부 참모들의 역할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불륜으로 몰아야 조직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가 됐었을 테니까요. 결국 안희정 지사의 온전한 사과를 막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고통받게 한 그들만이 이 프레임 속에서 잇속을 챙겨먹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안희정 지사라면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서 생각해 보시고 계속되는 이 고통들을 온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이 생각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패널로서 이야기를 해 주시느라고 또 안희정 사건의 바로 옆에 선 조력자로서, 주변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저희가 너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님 5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네. 국회에서도 늘 발언시간 제한이라는 것이 있어서 7분 안에 기재부 장관을 족쳐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오프라인으로 모여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오늘 공유해드리고 싶은 요점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강산이 변하기에 딱 중간 지점, 이제 미투운동이 촉발되고 나서 5년 정도의 지점에 이렇게 중간 결산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오늘 함께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분들, 또 그 자리를 채워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미투가 무엇과의 싸움이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성폭력과의 싸움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의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그 가해의 구조적인 맥락에는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기득권, 경제적 기득권, 문화적 기득권, 많은 기득권들이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미투를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존엄에 대한 피해에 맞선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의 기득권에 맞서서 용감하게 저항하고 폭로하고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투 이후에도 사실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공고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을 경험한 5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투가 폭로된 이후에도 사과를 하자마자 하루 만에 철회를 하기도 했고, 결코 사과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부정했습니다. 혹은 빼박캔트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행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폄하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또는 피해자를 공동체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혹은 그 입지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구조적인 기득권을 계속 활용해오는 것을 보았던 것이 지난 5년이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운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시민분들, 그리고 이런 시민단체들 그리고 이런 가치에 공감하는 정당과 입법, 사법 행정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관련된 잘 알려져 있는 어떤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성찰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움직임들이 있어 왔던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 5년 안에 보아왔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 정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처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만큼 꿈꿔왔던 것은 성찰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과연 우리가 힘겹게 만들어낸 처벌의 시간이 가해자와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속해 있던 우리 공동체와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션 준비하는 사전모임에서 나임윤경 선생님이 굉장히 큰 화두를 주셨어요. 저는 정의당에서 비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미투운동의 연대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 내 성폭력을 미투한 미투

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공동체에는 성찰이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불충분함을 느낀다,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찰이라는 게 ‘너 성찰해!’라고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냐. 성찰해야 한다는 구호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 구호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정말 피해자가 생각하고 미투운동의 당사자와 연대자가 생각하는 성찰의 구체적인 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공유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분이 남았으니까 일단은 마이크를 건네고 아마 한 번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성찰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겁니다. 이야기의 형태로 남아야 그것이 성찰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투운동, 이 운동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건들을 어떤 이야기로 기억하고,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성찰이 어디까지 왔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도 중요하고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도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는 피해자의 용기에 대한 어떤 확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비디오가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스스로 반성이 되었던 부분은 여전히 피해자는 개인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가? 공동체가 함께 이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진짜로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옆에 계신 소중한 말씀 듣고 나서 좀 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신 스토리텔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역시 단련된, 시간을 지켜주실 수 있는.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정말로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공통 질문으로 이따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같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성찰하기만을 촉구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로 무엇이 남아야 되고, 무엇이 공유되어야 하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써 내려갈 수 있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할 텐데요. 이산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산 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아까 드린 소개에 조금 덧붙일 것이 있는데, 제가 성폭력 사건을 지원했던 것은 사실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고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이나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늘 가능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성평등작업실 이로〉라는 단체는 성평등 교육을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저는 배우로 활동하면서 성평등 교육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원고를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인터넷으로 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려고 고민을 할 때 만두를 사러 집 근처 만두집에 갔는데, 사장님이 위생 비닐장갑 한 장을 끼고 만두를 쪄서 집어서 용기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안 뜨거우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뜨거운데 하루종일 그 일을 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 만두를 집었던 손 말고 다른 손으로 저한테 봉지를 주면서 그 만두 집었던 손을 살살 터시는 거예요, 뜨거워서. 생각해보니까 집을 때도 뜨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 빠르게 집는 손놀림이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오면서 ‘아니, 안 뜨거웠을 리가 없는데 너는 왜 그것을 안 뜨겁다고 생각을 했어?’

이런 걸 저한테 스스로 잠깐 물어봤었어요. 그러면서 오만 생각을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시간이 있어서, 만두를 혼자 먹는 동안. 그러니까 저분은 혼자 저렇게 하시는 건가? 직원을 쓰면 직원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면장갑 하나 더 끼면, 저희 짐 나를 때 쓰는 장갑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더 끼면 만두가 터지나? 만두피 조금 더 두껍게 하면 맛이 없나?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정말 내가 지금 뭐하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웃음).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2017년, 2018년을 보내고 연극계에서 해온 일들은 다 이런 걸 고민하던 일들이었어요. 계약서에 들어가는 한 줄, 그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지닐지는 잘 모르면서 그래도 성희롱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진다는 한 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 경력이 적은 사람들은 발언권이 적으니까 끝날 때 경력이 적든 많든 다 같이 한마디씩은 하고 끝내야 뭔가 불편한 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연습을 하려면 대본을 읽는 때가 있고 움직이는 때가 있는데 움직이는 때에는 만약에 신체접촉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약속을? 뭔가 약속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하나는 너무 작은데 그때 저희가 느끼는 감각은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구조가 사실 2017년, 2018년에 폭로되었던 그 사건을 만들었다. 물론 저는 가해자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분명히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건데, 동료로서 바꿀 수 있는 건 작은 일들이 쌓여서 만드는 구조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힘을 합칠 것을 서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이, 저희가 공동체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공동체는 가속도가 붙기 쉬운 것 같아요. 아마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변화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도 가속도를 붙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퇴행하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꼈던 사건이 있는데, 제가 연극을 하던 초년생 시기에 거기서 돈을 벌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작품 창작은 할 수 있었던 작은 스튜디오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60대 배우가 손수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자원이 없고 공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냥 써라, 작품 만들고 활동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 상황을 너무 기뻐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제가 활동을 하던, 한참 4년 정도를 해서 그 공간이나 거기 사람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무렵에 성폭력 피해가 있었어요. 그 60대 배우에 의해서. 그 상황이 1년 좀 넘게 지속될 때쯤에, 이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발언권도 있고 협상력도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활동을 중단하겠다, 나는 나가겠다라고 하고 나갔는데 나온 지 한 1년이 지나서 너무 화가 나서 약간 홧병이 났어요. 그래서 홧병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이제 소장을 썼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가 썼는데 그것이 1년 반 정도 걸려서 얼마 전에 한 소송비용 정도를 보존하는 정도로 조정 판결을 받았어요. (박수) 감사합니다.

이기기에는 증거가 조금 없었고 다행히 한 판사가 정황들을 보고 조정을 결정해줘서 그렇게 끝났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매듭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의 정체를 잘 모르

겠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신경 쓰는 것도 좀 힘들었고 저도 뭔가 풀리지 않았다고 느꼈고 사과도 못 받았고 – 사과는 계속 못 받았지만 – 어쨌든 매듭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정작 빨리 매듭지어진 것은 그 스튜디오로 맺은 관계들이었어요. 그게 너무 빨리 싹 다 매듭이 지어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몇 사람과 그 외의 사람들로 나뉘어서 관계가 먼저, 저의 마음의 짐보다 관계가 먼저 청산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그 개인 개인에게 제가 어떤 미움이나 원망을 갖기에는 저도 그 구조를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해관계라고 느꼈어요. 성평등 감수성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본인이 여기에서 활동하면서 자원을 얻을 수 있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나 이런 판단을 따라가다 보면, 저도 관계가 끊긴 동료들의 판단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결론에 이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연루감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걸까? 그러니까 피해자와 연루되면 가해자 근처에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해자와 연루되면 피해자 근처에는 갈 수 없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가해자가 출소를 하든 어떻게 돌아왔을 때 이런 이해관계망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결국은 가해자가 그거를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히 제가 속한 연극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얻는 게 너무 적어'라는 이유로 그 이해관계의 어떤 망을 들여다보기를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얻는 게 어디 있다고 그걸 들여다보냐고 하지만 분명히 없지 않은 그 망을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계속 동료들을 서로 초대하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정운

사회자　여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공통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이 질문은 오늘 오시지 못했던 나임윤경 선생님이 사전모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짚었던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세 분 다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공동체 내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또 용기 있게 고발하고 그 옆에 섰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폭력을 경험한 조직이나 공동체는 결국 그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없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 사실 그 폭력이라는 경험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 트랜스포밍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나임윤경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그 방식이 사실 조직이나 공동체를 굉장히 성숙하게 만드는 어떤 방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나쁜 방향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데 그 방식이 조직을 성숙하게 하는 어떤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굉장히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폭력의 경험 이후에 공동체의 성숙이라는 의미로서 트랜스포밍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어떤 숙제이고 과제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함께 짚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력의 경험 이후에 어떻게 진화적인 방식으로 성장의 의미로 조직과 공동체 내의 트랜스포밍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는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가로 막는 그런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한번 질문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장혜영　오늘 차려진 메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호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는 약간 특수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 그러니까 스스로의 문제를 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나갈지를 주도할 수 있는 종류의 힘이 있는 상태로 대처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전범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행위했던 것으로부터 도출해보자면 – 돌아가고 싶은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상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득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득권으로 구조화됐던 것이 나의 일상이었던 거든요. 그런데 그 일상으로의 폭력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마치 매드맥스에서 사막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결국에는 새로운 일상을 창조해내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찰의 과제도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건 이전의 일상은 이제 없고 사건 이후의 일상에서 어떻게 이 피해자가 떠나고자 한다면 떠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의 삶이지만 남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새로운 세계관을 함께 만들 것인가를 함께 끝까지 고민하는 것, 그게 저는 핵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의당 이야기를 하자면 적어도 저는 이제 가해자의 이름을 편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는 심적으로는 많이 놓여놨습니다. 김종철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나 정의당의 이야기에서 특히나 지금처럼 당의 어떤 성과를 뼈아프게 돌아보는 시기에 거의 기억의 싱크홀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이 정당에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토리텔링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너무 아픈데요. 저도 아픕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텔링을 저에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시기에, 그런데 저는 심지어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해내고 마이크가 오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세계관을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동체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스킵하거나 대충 규정하거나 남들이 규정해준 언어가 아니라 내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가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일상의 방식을 함께 연대해서 그 언어를 반영해내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다듬어나가고 나누는 과정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정운

사회자 네. 저도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제 머릿속에도 여러 인사이트를 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사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한테 모든 걸 묻거든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안 지내고 있으면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 묻거든요. 공동체는 그것이 자기의 과제나 자기의 숙제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같이 이야기를 쓰고, 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일상이 펼쳐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산도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이산 제가 적게 말하면 란 선생님이 조금 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웃음) 저는 일단 공동체의 과제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것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것들을 세세하게 쪼개서 다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다음 세션들에서 조금 더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이 '연루감'을 어떻게 소화하시도록 돕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진
–
정운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목이 거북목이 심하고 목이 아파서 운동을 할 때 이게 등의 근육을 키워야 되거나 배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제가 등이나 배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정말 목이 나아지네요” 이렇게 지식과 경험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저는 지금 목도 아픈데 그럼 제 배와 제 등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받아들이기를 너무 어려워하는 상황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상태인 공동체가 많을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반드시 어떤 어마어마한 비도덕적 – 물론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 사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그냥 모를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부채감이나 자책감을 가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좀 나눠줬으면 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지지 않고 방어하는 상황이어서 그 격차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회자 네. 지난 8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출소하는 날 이제 언론 기사가 정말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이것을 과연 두고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도 했었는데요. 사실 안희정 전 지사가 정치를 이제 그만하겠죠? 그만해야겠죠?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출소 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발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이 언론보도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이 정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용우님이 저희가 좋은 방식으로 트랜스포밍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막는 장애가 있다면 무엇이 있지 이런 고민들, 혹시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실 이

야기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우 제가 앞에 발제 내용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남은 과제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적어도 최근 관심 있게 본 5년 동안은 그래도 사회가 많이 진보하였습니다. 더 이상 직장 내에서 과장님, 부장님 옆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술 따르는 일은 없어졌고요. 술을 강요하거나 그게 실제적으로 회사 내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스킨십들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 활동가님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 항상 응원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사회자 제가 시간을 너무나 강조하는 바람에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같이 들으신 패널 분들 중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분 있으시다면 한 분 정도만 질문 내지는 의견을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이크로 조금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분 계실까요?

참여자1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올라왔고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장도국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들 중에 공동체의 역할, 그리고 함께하는 그 연대 단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지금 광주에서 얼마 전에 그 광주 연극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안에 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입증과 다툼의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는 활동가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저와 같은 동료들도 있는데 이들이 그 공론화 과정 이후에 겪는 피해들 그리고 뭔가 낙인찍히거나 배제 당하는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그것을 회복하고 입증해나가는 시간 동안 사실상 1년 어쩌면 지금 2020년에 광주시립극단에서 발생한 성희롱 문제도 당사자이기도 하고 함께하면서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가 있어야 할 그 무대 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는 과연 정말 이 공동체, 그리고 시민의, 국민의, 동료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연대자인가, 아니면 저도 피해자인가. 이제는 그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나누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실은 광주에서 이곳까지 온 이유도 광주에 이러한 연극계 성폭력 문제가 있는데 늘 어느 먼 지역들은 그냥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용한 이야기, 그렇게 묻혀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가해자가 작품을 연출하고 극작한 작품이 광주시 산하 기관인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그냥 올려졌는데요. 물론 시민들과의 약속 때문에 공연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전체 피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 공연이 올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서로 명확하게 논의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무시된 채로 그냥 공연화 되어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 공동체가 같이 피해를 보더라도 좀 멈춰서 견디는 시간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펜데믹도 그러잖아요. 이미 코로나에서 모두가 겪는 사회적 거리 두기나 서로 격리된 순간을 견디면서 전체 피해를 최소화 또 하듯이 우리가 마주하는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멈추고 직면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만 좀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인가요, 연대자인가요?

사진 – 수수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주세요. 연루됨이라고 하는 아까 이산님의 이야기로부터 무언가 나눌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여러 공간에서,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공동체에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싸우고 있고 싸워나가고 있고, 싸우려고 하고 있고,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이 행사 제목을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정한 것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멈춰 서서 함께 있는 우리가 되짚어야 할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였는데요. 피해자이자 조력자이자 연대자이자 주변인으로서 공동체가, 조직이 어떤 고민과 과제를 앞으로도 해나가고 또 남겨 두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가해자 개인,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 개인,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만 두지도 않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해 주신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저희가 성폭력에 연루되어 있는 주변인으로서, 조력인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용기 있게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셔서 더 풍성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 패널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세션은 10분 휴식 시간을 갖고 3시 10분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3시 9분까지 이 자리에 다시 착석해 주시면 되고요. 10분 동안은 아래 부스, 전시 잠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은 2층에 두 군데가 있고요. 1층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모두 성중립 1인 화장실입니다.

‘피해 부정’의 시간, ‘2차 피해’ 해결은 가능한가?

디자인
–
FDSC
박영신

쟁점 토크

피해 부정의 시간, 2차 피해 해결은 가능한가

사진 – 정운

사회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저희가 피해 부정의 시간, 2차 피해 해결은 가능한가 하는 주제로 네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한겨레21의 박다해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 앞에 1차 세션에서 진행자 분이 너무 스무스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약간 부담이 됐는데요.

두 번째 토론에서는 2차 피해 그리고 피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양상을 다룰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미투운동 이후에 성폭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탄핵하는 양상도 더욱 격렬해졌고요. 성폭력을 부정하기 위해 들어가는 자원의 양도 전 사회적으로 조금 더 커졌습니다. 동시에 2차 피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대중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는 2차 피해를 어떻게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 양상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이에 대해서 공동체적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쟁점 토크는 미투운동을 지나오면서 각자 현장에서 느끼셨던 2차 피해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고민, 그리고 문제의식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사전 준비과정에서도 되게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2차 피해와 관련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전된 토론을 나누는 자리는 앞

으로도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각 패널분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정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김혜정, 오매라고 합니다.
이보라 저는 국회여성정책연구회에서 일하고 있고 국회 보좌관으로 있습니다. 이보라라고 합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송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권김현영 안녕하세요? 여성현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권김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네, 그러면 2차 피해라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각자 고민하신 내용을 5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정 5분이라는 압박감이... 시간을 기획한 기획팀 중 한 사람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웃음) 5분 잘 지켜보겠습니다.

사진 – 정운

미투운동 4년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2차 피해 대응 4년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대응을 했는지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20가지가 넘었던 것 같아요. 시민 제보 창구 만들고, 기자회견에서 경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손편지 발표하기도 했고, 공대위가 고발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 리포트 보냈고요. 민사 소송도 진행돼서 의견서, 법적 지원 그리고 사회 지도층 2차 가해자에 대해서 제재하라는 성명, 언론 제보, 서명 운동, 공천 배제 요청하는 것, SNS에서 글로도 싸웠고요. 그리고 2차 가해 글 내리기 신고 운동, 유튜브 가짜 뉴스 채증하는 걸 일일이 했었고, 대선 기간에 해당 문제 알리기, 특정 사회 인사에게 사과라고 하는 걸 촉구하기, 또 고소 당하기도 했고요. 피해자 사진 과도한 사용에 대한 삭제 요청을 일일이 언론 모니터링 해서 보내고, 그리고 문구들 바로 연락해서 '이 문구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거 계속 연락하고, 토론회 개최,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 요청, 청와대 면담 요청, 정책적인 요청, 관련된

입법하는 것. 종류만 해도 20가지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성폭력 1차 피해를 사회가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2차 피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통용시키기로 한 의지의 공동체라는 걸 전제로 했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2차 피해에 관한 연구는 이제까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유현미님께서 대학 내 미투 관련된 2차 피해를 좀 분류할 필요가 있다, 분류하고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분류하는 것을 논문으로 또 이제 발표 글도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4~5년간 좀 악랄해진 사건에 대해서 주로 대응을 하게 되었던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꼽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안희정, 조덕제, 정봉주, 박원순, 박재동, 박진성 사건 등을 조금 꼽아보게 되었고요. 이런 사안의 공통점을 생각해보았더니 이제 부인하려는 행위가 끈질기고 전면적인 사안들이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권명아나 허민숙 선생님은 진술 부정의라든지 피해 부정주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분석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인하려는 행위라고 제가 말하게 된 것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관계에 의해서 성폭력이 아니었고 그래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하려는 행위가 적극적일 때 성폭력 아님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려는 행위는 두 행위를 다 넘나들게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이것은 정당한 피해자에 대한 검증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고, 무죄 추정 원칙이고, 피고인, 피의자 권리 담론이다라고, 권리다라고 하는 담론이 한 축에 있고, 또 한 축으로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의심, 음모론, 여론 형성, 가짜 뉴스, 사생활 평가, 위협 같은 것들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검증인지, 사건과 무관한 공격인지 어디에서부터 선이 그어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뭉뚱그려져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찰이나 검찰, 재판부나 어떤 언론이나 기업이나 노동청도 어떤 행위는 정당한 권리 범주 안에 있는 행위지만 어떤 것은 부당한 행위다라고 선을 긋거나 거기에 제재하거나 이러는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지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2차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책임 있게 해결해라라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할 역량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구성될 수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 운동에서도 2차 피해라고 하는 개념과 그것의 주체 형성, 그리고 책임 있는 개입을 하게 하려면 사회 운동이 함께 그 형성 과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느끼고 같이 협업해야 될 필요가 여전히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부인하려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안희정, 조덕제, 정봉주, 박원순, 박재동, 박진성 씨는 자기 복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업자들이라고 하는 행위가 그냥 나의 친한 사람을 구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되게 부당한 어떤 행위,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공격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남성 연대라고 하는 걸 경유해서 차별적이고 권력적인 행위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말할 것인가가 되게 많이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성희롱 시민 위원회를 가든 사건을 볼 때 조직도를 보거든요. 계속 조직도를 그리고 거기에 누구 누구 누구가 있는지, 이 팀이 어디 있고 어느 국에 있고, 아까도 연극계 조직도를 그리기 힘들지만 그려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직도를 저는 그리게 되었는데 이걸 시민들이랑 어디까지 알리고 공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제였고,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자 김혜정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안희정 전 지사가 출소할 때 민주당 정치인들이 보인 모습이 좀 떠올랐는데요. 그들만의 조직도가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는 사실 그게 어떤 커뮤니티나 SNS랑 또 결합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2차 피해가 더 확산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치권에서의 고민에 대해서 이보라 보좌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라 소개받은 이보라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난 시기의 미투운동, 그리고 그 이후의 2차 가해 행위들을 복기하면서 기본적으로 2차 가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알려낸 것은 사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그리고 피해자, 피해자 연대자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의 성과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서로서로 격려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진 – 정운

저는 정세랑 〈시선으로부터〉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그 내용을 좀 보면 “한국에서는 혼자서는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한국은 너무 공기가 따가워” 이런 말이 있는데요. 2차 가해는 가해자와 피해자 밖에 없는 세계에서 우리를 둘러싼 어떤 세상과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기’를 발견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같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의 가능성이 있고, 또 그 공기라는 말 속에서 한계가 같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2차 피해라고 하는 것은 사회운동이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흡수했던 어떤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

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어떤 원리가 사회의 어떤 공동체에 공유가 되고, 그 공동체가 법의 제정, 개정으로 순서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이 있고, 그것을 바로 수용했던 입법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느린 사회 공동체의 어떤 사후적 공유, 사실 아직도 공유가 안 된 그런 어떤 지체 속에서 우리가 딱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사실 언론도 계시지만, 언론이 어떤 사건을 굉장히 빠르게 키우고 있고, 그리고 국회가 사건을 바로 입법화시켰던 어떤 배경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 누구누구 법, ○○방지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어떤 언론의 단타성과 국회의 어떤 단발성이 같이 만나는 접점에서 생겼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저도 국회에 있는 입법 노동자로서 이전에 양진호 사건이 한창 있었을 때 웹하드카르텔 방지법을 만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웹하드카르텔 방지 5법을 하룻밤에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만들면서도 너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입법은 반드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돼 있다는 걸 너무 아는 입법 노동자로서 제가 하루 아침에 법을 5개 만들 수는 있겠는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에 전략이 있는가? 라는 물음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막 입법을 – 어쨌든 빨리 하기는 했었어야 됐으니까 – 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스스로 저를 보면서 법을 만들고는 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걱정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법을 좀 보시면 2차 가해라고 하는 폭력 방지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방지의 수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2차 가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횡행하고 무성했으나 그걸 방지할 효과적 수단은 우리한테 아무 것도 없는 거고, 세상은 발견되어 있으되 따가운 공기만 목도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 모두가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분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언 끝나면 법적으로, 그 다음에 형사사법적으로, 그 다음에 운동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분류해서 그 용법이 사용되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보라 보좌관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론의 단타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굉장히 찔리면서 저희도 이런 사회적 이슈나 공론화가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쫓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미투운동 이전보다는 좀 그래도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보도하는 데에서 윤리에 대한 고민도 그렇고, 늘어났지만 사실 아직도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언론 안에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란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란희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지난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런 걸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다 그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2차 피해 관련해서는 여성운동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운동적 차원에서의 2차 피해를 개념화했던 것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좀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투 지나고 사실 진영 자체를 뒤흔들만한 큰 사건들도 여러 개가 있었고, 그리고 가해자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지?' 그렇지만 달라졌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웃음) 운동은 운동해야 하니까,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40년 전부터 얘기해 볼까 봐요. 우리나라에서 여성폭력 얘기하기 시작한 40년 전에, 오늘 40년 후에 이 자리에서 2차 피해에 관련해서 얘기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각각의 일어난 폭력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걸 잘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이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고 그러면서 사실은 2차 피해라는 개념도 같이 만들어져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폭력 문제 해결이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 공동체, 가정, 친구, 동아리, 학교에서부터 국가까지 이 공동체에서도 같이 다뤄야 할 문제라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여성운동의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과 사회 인식의 문제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실체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개념화했다는 말씀인데요. 피해자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가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잘못한 것이라서, 사실은 이퀄로 칠 수도 있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좀 다르고, 전략도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와 문화의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좋은 언어를 우리가 개념화했다는 면에서 2차 피해가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차 피해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거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좀 종종 실패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초반에 기억하시면 아마 지금도 많은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할 텐데, 말만 하면 2차 피해라고 하니까 말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물어보는 것도 2차 피해 될 수 있으니까 피해자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성폭력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끔 했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 혼재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집단 지성과 경험의 힘으로 조금씩은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 이보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투운동의 흐름을 타고 2018년 크리스마스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생겼죠. 그리고 2차 피해라는 말을 운동에서는 많이 쓰고, 공동체에서도 많이 썼지만 법률로써 딱 2.차.피.해 이렇게 써 있던 건 그 법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 의료, 언론 기타 등등에서 사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2차 피해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다른 법률에 있었던 사용자가 인사상이나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에 처하는 것, 뭐 이런 것을 법률에 집어넣게 되었던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성폭력에서의 2차 피해는 굉장히 강조돼서 얘기돼 왔지만 다른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더불어서 같이 법제화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벌 조항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요즘에 하는 고민들은 이것들을 강제하는 수단이 없는데 이걸 모두 제도화해야 하나? 법제화를 다 해야 하나? 법제화를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지금 저에게는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다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각자 다를 수도 있고, 이걸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사법적으로 '정의롭

게’ 처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원 사건인 강간,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 요건을 하고 있는 것은 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폭력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아니면 최소한 법 쪽에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합의는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원 사건에서의 해결이 난망한 가운데 2차 피해라는 것은 당연히 예정될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나머지는 또 순서 오면 말할게요.

사진 – 정운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2차 피해가 법에 명명되는 진일보는 있었지만 2차 피해를 말하기에 앞서 우리가 과연 원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이것을 잘 사법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잘 해결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권김현영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권김현영　안녕하세요. 5분이라는 시간을 갖고 나한테 어쩌라는 거지? (웃음) ‘빨리’ 말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오늘도 에이유디 협동조합에서 문자 통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5분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요령 있게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지만 사실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몇 가지 단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할 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2차 피해와 관련된 싸움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렇게 계속 크게 만드는 것이 좋은 전략일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잘못된 방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진
–
정운

2000년대 한국 영화에 대한 경향성을 보는 어떤 연구들을 보면 2000년대 한국 영화에서 유괴 영화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가 유괴되는 거죠. 그리고 유괴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형사 아니면 엄마, 아니면 아빠가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2시간 내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종류의 영화가 하나의 장르를 만들 정도로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쭉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냐 하면 그 아이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나 찾고 싶어 하고, 아이가 결국은 어떻게 되고 나면 그걸 복수하기 위한 이야기가 그 이후의 스릴러 문법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사회학자 김홍중씨는 이런 유괴영화를 분석하면서 이 아이가 말하자면 리스크 토템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존재로서의 리스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보물 같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토템인 거죠. 하지만 이 리스크 토템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0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리스크 토템화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스스로 말할 수 없고, 사회는 보호해야 되지만 계속 관리에 실패하는 존재로서의 리스크 토템. 그런데 이 리스크 토템으로서의 피해자들이 2018년에 미투운동 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전 사람들이 2018년 미투운동 이후의 피해자의 집단적 말하기에 대해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패닉 상태에 안 빠진 건 여기 우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투가 혁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반동 형성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2차 피해, 그리고 2차 피해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 싸움이 제대로 된 싸움이었단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엄청난 2차 피해가 일어난 사건은 사건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사

회의 환부를 정확하게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실 2차 피해를 둘러싼 저는 사회 윤리 차원에서의 이야기와 사법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조금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김혜정 선생님과 송란희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보라 선생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듯이 2018년 12월에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됐고, 2019년 12월부터 그것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폭력방지법에서 2차 피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이 넓은 범위 중에 심지어는 어떤 식의 범위까지 있냐면 어떤 식의 피해자가 어떤 식의 손상을 느끼고, 그 손상과 그리고 이 피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2차 피해를 확장시키게 되었을 때 2차 피해의 쓸모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 상담기관 등등에서의 2차 피해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차원에서의 어떤 윤리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규정은 굉장히 명확하고 누가 어떻게 뭘해야 되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확장되었을 때 2차 피해는 지금 계속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한테 뭘 물어봐도 2차 피해야?”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에 끊임없이 응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기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그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사회 윤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법 정의라는 차원에서 2차 피해와 관련된 문제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떤 집단에게 무엇을 물어야 되고 그것이 왜 우리한테 공적 안정성이 필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척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작은 싸움들, 이길 수 있는 작은 싸움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고안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다해 기자님 계시지만, 언론에서 지난 미투운동 이후에 관련 보도가이드라인을 많이 만듭니다. 성폭력 보도가이드라인. 변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꽤 많은 고민들을 진척해왔습니다. 상담자들 사이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사회 윤리라고 하는 차원도 사실 미투운동 이후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경찰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너무나 열심히 공부해요. 2차 피해와 관련된 문제에서 자신들이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안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그 책무가 무너진 사람들을 집단으로 중심으로 2차 피해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꽤 활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중 차원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논의는 이 논의는 잘못 가게 되면 사실은 피해자한테 끊임없이 어떤 종류의 질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식의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만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세션에서 장혜영 의원님 이야기하신 피해자한테 계속 스토리텔링을 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2차 피해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피해자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상과 피해를 중심으로 2차 피해를 정의하게 되면 손상과 피해를 증명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법의 커다란 개정 과정에서 그 전에 폭행, 협

박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다가 동의를 중심으로 강간에 대한 정의 개념을 바꾸자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페미니스트들이 고민했던 것은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강간을 규정하게 되면 폭행, 협박을 했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중심으로 물어보게 되면 동의를 했냐고 물어보게 돼요. 누구한테 질문이 넘어가냐 하면 피해자에게 질문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맞다면 2차 피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한테 돌아간 질문에 피해자의 목소리에 어떻게 힘과 그리고 그것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잡아내서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기회가 있다면 이따가 다시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2차 피해라는 개념이 사실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피해자한테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2차 피해라는 개념을 – 특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 승리할 수 있는 작은 싸움을 만들어나가려면 어떤 게 조금 더 필요한 것인가. '2차 피해라는 관점이 공공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유용성을 더해가려면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더 돌아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 네. 공통 질문이 "어떻게 하면 2차 피해 개념이 더 유용성을 확대해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패널들 말씀 들으면서 2차 피해가 역사적으로 항상 너무 힘들었다거나 언제나 2차 피해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거나 언제나 2차 피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거나 이렇게 말하기보다 이제까지는 그 개념이 어떻게 생겼고, 법적인 절차 같은 것들은 구체적인 행위규정이 생겨났고, 어떤 일터,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불이익이라는 규정이 형성되었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을 근거로 국가대상 손배소송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그 후 어디로 무엇이 확장되려고 할 때 어느 지점이 숙제인지를 얘기해야겠다, 오늘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앞으로의 좌표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폭 방지법에서 2차 피해는 사실 선언, 선언이죠. 제재가 없고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이 생기면 일제히 교육 받아야 해, 하면서 술렁이는 게 있는데 여폭 방지법상 2차 피해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과제겠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매뉴얼이 있고 위반하면 안돼, 라는 건 있었지만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토론이 남아 있고, 그것을 확장하는 과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용성을 덧붙이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등 사회권을 위한 투쟁도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도 하고 있는데 성폭력이나 여성폭력에서의 2차 피해 개념이 다른 사회적인 인권과 평등, 사회권을 확장해나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혹은 보편성을 띨 것인지, 어떤 인용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봤을 때 – 그런 지점이 2차 피해 개념과 방향을 정돈하고 유용성을 가져가는데 어떤 나침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이보라 보좌관님 말씀 이어주실까요.

이보라 아까 빠른 입법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비용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 사회 공동체가 법의 속도처럼 같이 만들어지지는 않는 형태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게 되는 건 사회가 공동화, 뻥 비어버리는 현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지점은 바로 정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정당과 정치는 어쨌든 제 생각은 공동체가 특정되어 있으면 2차 가해 개념이 유용하다입니다.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요즘 이제 원 사건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에서 이제는 원 사건에 대한 메뉴얼과 처리 절차들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2차 가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정당과 정치 같은 어떤 평판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가장 일상으로 복귀 못 하게 만드는 기제가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2차 가해를 얼마만큼 제대로 규율하는지가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게끔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특정되어 있다면 즉 정당, 우리는 당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특정이 되고 공동체가 특성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2차 가해 개념은 유용하고, 2차 가해에 대한 명명과 그에 따른 어떤 합리적인 해결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요.

사진 – 정운

다른 하나 아까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사법적 해결과 어떤 형사 절차적 해결, 그 다음에 법원에서의 어떤 해결 이런 방식에 다 2차 가해가 통용되었을 때 이제 문제와 한계들이 같이 있는데요. 여폭 방지기본법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폭력 방지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폭력에 대한 제재 수단은

교육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선언성의 법안이고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도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동일인의 반복행위 및 2차 가해한 행위에 대한 제재 이거는 규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2018년 조덕제 성폭력 사건에서 기사 삭제나 정정 보도를 청구하도록 법원이 조정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게 명확하게 2차 가해라고 명명하고, 법원이 좀 중재를 했던 사안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일정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이것이 동일인의 반복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의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규율할 수단이 없다는 것, 그것이 법원이 현재 갖고 있는 한계이고 그 한계는 사실상 넘어서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지점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법체계로 가면 형벌의 최소주의라든지 침해 최소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원 사건과 2차 가해자를 명명함으로써 확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2022년 얼마 전 7월 4일에 2차 피해라는 개념을 아예 만들었고 가해자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등의 어떤 일들을 하면 2차 가해로 명명을 하고 규율할 수 있는 절차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정 부분 법원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되었다는 진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인적 사항 공개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절차 말고 제3자의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규율할 언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형사사법절차적 효과에 대해서는 권김현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매뉴얼이 싹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도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애는 쓰고 있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청문감사실에 바로 제보하면 위에서 내려와서 제척 회피를 시키는 방식으로, 조사관의 문제 행위들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조사의 분위기가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어떤 침해최소성, 비례성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제3자의 2차 가해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확대시키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운동 쪽 효과인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너무 많고 공기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눈 가리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때문에 확실한 것은 2차 가해라는 개념은 유용할 때만 한정적으로 써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여지고 그때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이 목적일 때에는 2차 가해의 언어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언어이지만 제재가 목적일 때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형사사법의 언어로 급격하게 들어와서 혼재된 것이 있지만, 이것을 떼놓고 운동적으로 처벌이 목적일 때와 제재가 목적일 때를 분리를 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다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조금이나마 유용한 언어로 다시 쓰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혜정 2차피해 관련된 규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고 계시기도 하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이보라　예. 맞습니다. 정당에서 2차 피해를 명명하고 2차 가해를 한 사람에게 2차 가해야, 라고 특정해서 가해사실을 인정시키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없습니다. 이를 테면 가해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가해사실을 특정을 해서 당이 공문을 보내서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도록 하고 해당 사건이 누적되고 반복되고 원 사건에 준해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말씀하신대로 2차 가해라는 개념이 언론, 정당 혹은 플랫폼 이런 공적인 주체들에게 한정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중, 공동체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개념을 어떻게 쓰는 게 조금 더 유용할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남거든요. 송란희 선생님과 권김현영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말씀을 해 주신다면.

사진 – 정운

송란희　사실 2차 피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면서 상담실에서도 변화가 좀 있는데, 예전에 피해상담을 하실 때는 이게 성폭력이냐 신고할 수 있는 거냐 유죄 나오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셨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겪은 게 2차 피해인 것 같다. 그러면 얘를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많은 요소들을 2차 피해로 명명하는 경향들이 확연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차 피해는 맞는데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피해자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구조적인 문제로 인지하는데도 저는 2차 피해라는 용어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저는 다시 운동적으로 봤을 때 이 개념의 가장 유효한 지점은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인과 사회인식의 문제가 실제적 피해를 일으킨다는 인식을 확장시켰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이 문제가 해결을 가기가 쉽잖아요.
엊그제 나온 기사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연구결과는 못 봤지만. '미투운동이 피해자에게 미친 우울감에 미친 영향, 우울감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본인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게 큰 목소리로 나왔을 때 피해자 개개인의 우울감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사실 저희가 늘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방증해주는, 직접 증명해주는 그런 연구결과가 아닌가, 원문을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각각 작은 조직부터 큰 조직까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침을 만들거나 메뉴얼을 만들거나 하시는데 그러면 동료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되고, 사건담당을 맡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행위를 만들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비난하면 안 된다. 따돌리면 안 된다. 정보를 너무 제한하면 안 된다. 그 조직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토론들, 시민 단위에서의 이런 토론과 공적책임이 있는 자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의 어떤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김현영 다 비슷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피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법이 만들어졌던 그 모법은 그 행위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선언하고 규정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거기 안에 구체적인 처벌조항을 만든다기보다는 이거를 기준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 국방부에서도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2차 피해 방지 매뉴얼을 길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언론이든 어떤 사회단체든 공무원사회든 이게 보통 품위유지 같은 것으로 굉장히 불분명하게 이야기됐던 윤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2차 피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재구성해가면서 각각의 조직 내 제재조치를 만드는 것으로 활용하는 – 이런 식의 구조를 방식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법과 각각의 제도가 활용되는 방식으로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와 공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부장제를 그럼 금지하자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자본주의를 금지하자 불가능하잖아요. 가부장제를 금지하자고 하는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요. 법적인 형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혁명을 하고 싶지! 그런데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차 피해를 없애자가 아니라 가부장제를 없애자가 목표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동일하게 사용해버리면 2차 피해를 없애자는 말이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의 위대함을 훨씬 더 축소시키는 말이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 말의 남용을 하지 말자는 것은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차 피해 유난히 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왜 그렇게 심한지를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2차 피해 자체를 어떤 유형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건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나는가. 그런 사건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실 공론화는 크게 되었으나 실제 사건에 대한 정보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음모론이 굉장히 횡행하게 될 때 이럴 때 저는 정말 사건의 공개수위에 관련된 조정들을 통해서 2차 피해를 하지 마, 가 아니라 어떤 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방식으로 접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어떤 사건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매력적일 때 2차 피해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은 젊고 예쁜 여성들이 피해자일 때 2차 피해가 강력하게 생기는 이유는 젠더규범과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여성 내의 소비되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뇌는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성문화를 바꾸는 방식의 사회운동과 사회가 여성의 성적자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가?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가해자가 부인하는 사건들이 사실 2차 피해가 심하죠. 가해자가 부인하기 때문에 심합니다. 가해자가 사건의 실체가 끝나고 나서도 부인하고 있는, 대법원까지 간 이후에도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명예훼손을 하거나 그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단절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2차 피해를 없애자'는 큰 목표가 아니라 왜 발생되냐에 따라서 사건지원 플랜들을 각각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하면 좋겠다.

사진 – 정운

연극계 성폭력 대응하는 공동행동을 보면서 감탄했던 것은, 연극계 분들께서 뭘 만드셨냐 하면 CTS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 극장에서는 안 돼, 라는 규율을 만든 거죠. 함께 만나서 처음으로 연습을 할 때 그거를 같이 읽고 이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식의 규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정에 대한 시간을 얼마나 쓰게 할 것이냐, 이게 문화라고 생각해요. 매뉴얼 다 만들었지만 아무도 몰라요. 기자들의 보도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를 읽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언론진흥재단 같은 곳에서 기자들한테 보도가이드라인을 토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해놓아야 한다, 이게 바뀌어야 할 지점이다.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관련되어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고 법을 만들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쓰게 만들 것인가. 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공유하게 할 것인가.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을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토론하는 시간들이 더 만들어졌을 때 이거는 유용한 개념으로서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에 선생님 권김현영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성폭력사건 처음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2016년 10월 21일이거든요. 왜 기억을 하냐 하면 생일이라서 일찍 퇴근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퇴근 즈음에 사건이 터졌어요. 문단 내 성폭력이 트위터에서 시작을 해서 고발이 시작되었고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2016년도에 시작했던 어떤 문화계 안의 성폭력 고발 그리고 2018년에 시작했던 미투운동 이렇게 쭉 저도 계속 그 분야를 보도를 해왔었는데, 2016년, 2018년이랑 비교를 하면 분명 어떤 성폭력사건을 보도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N번방 보도를 할 때도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사건의 행위를 어느 선까지 쓸 것이냐. 예를 들어 N번방은 이거 너무 선정적인데 노예라는 말을 1면에 쓸 수 있을 것이냐. 이 노예라는 말이 사건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써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토론들이 있었고 되게 가이드라인과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 기사제목이 수정이 되는 사람의 어떤 불쾌함과 어떤 것들을 계속 논의하고 싸우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사진 – 정운

제가 최근에 인하대사건이 있었잖아요. 인하대사건에서 한겨레신문 보도과정에서 칭찬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한번 수정이 된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최근에 우리는 어떤 여성이라는 점을 명명할 때 있어서 여성이라는 말을 어떤 사건에서 붙일 것이냐. 무조건 예를 들어서 여대생, 여검사 이렇게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여성이라고 명명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언제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찾아보지,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되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수정을 얘기하는 쪽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한 한 쪽이 있고. 그게 계속 경합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언론 전반에 얼마나 퍼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회적으로나 언론에서나 조금 더 많이 경합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아까 1세션에서 질문이나 이런 거 의견을 내주실 분이 있으면 청중들 중에 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 – 정운

참여자2 부산에서 왔고요.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8년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8년간 성추행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기까지 너무 힘든 과정이고, 버티고, 참아보고 있다가 작년에서야 가해자가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셀프 고발하게 되면서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게 된 상황입니다.

부산장차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에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차연도 그렇고 전장연도 그렇고 진보적인 단체이니까 같이 잘 싸워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보적인 단체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진보적인 단체에서도 2차 가해에 대한 해결적인 방안이 아직까지 없고,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 길을 만들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2차 가해를 얘기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계속 이것을 증명하는 차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이 사건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워 나가겠지만 진보적인 단체에서도 2차

가해나 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을지, 이런 토론과 자리들이 계속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 피해라는 개념이 피해자를 오히려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상 두 번째 세션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2차 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단초인 것 같아요. 2차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단초인 것 같고, 오늘 토크 내용은 패널 분들께서 상호 원고를 정리하고 공개될 예정입니다. 2차 피해 담론에 대한 성찰하고 논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조금 더 고민하고 유용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검토 과정을 거친 뒤에 후기나 사후 보도자료 등으로 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맞춰서 4시 10분이 됐는데요. 20분까지 공연 리허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10분 동안 휴식하시고 4시 20분에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
FDSC
최슬기

다함께

피해자는 일상으로 - 달라진 우리로 살아가기

사진 - 정운

사회자　안녕하세요. 화면이 잘 나가고 있나요?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많이 더우시죠? 이 더운 와중에도 소중한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게 계속해서 함께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투운동 중간결산 : 지금여기에있다' 세 번째 세션, '피해자는 일상으로 - 달라진 우리로 살아가기' 사회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감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마지막 세션에서는 미투운동의 대표 구호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를 다 함께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피해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피해생존자의 회복에 대한 조건과 환경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목소리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패널 분들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제 옆에 앉아계시는 주연님은요. 충북 스쿨미투 지지모임에서 당사자로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형사 재판 마무리를 하고 나서 지금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진학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박수 주세요.

다음 가운데 앉아 계시는 권수정 선생님은 금속노조 부위원장이십니다. 금속노조 내 첫 번째 성폭력 사건 공론화의 당사자고, 두 번째 사건을 문제제기했습니다. 지지난 주 사전 모임을 했는데 직전에 금속노

조 평등수칙 내규를 통과시키고 오셨어요,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금속노조 안에서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 두 분은 다들 1층에서 보셨죠? 무릎 위에 책을 얹어놓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허들을 넘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써주신, 편집하신 허와 들. 두 에디터를 모셨습니다. 생존자들의 일상 회복에 대해서 10명의 생존자들의 글을 모아 내신 책입니다. 두 에디터를 박수로 맞아 주세요.

이제부터는 세 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일상회복을 해야 할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한 내용을 5분씩 돌아가면서 나눠주실 건데요 가장 먼저 주연님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주연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지지모임이라는 것은 사실 생겨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생겨난 계기가 충북스쿨미투가 발생하고 나서 형사 1심에 열렸는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피해자가 모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고, 2차 피해와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주지 않은 것들, 피해자 혼자 나가서 진술을 해야 했거든요. 문제를 느꼈던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인데 저는 어쨌든 이 사건이 많은 걸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18년 9월에 트위터를 통해서 교내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들, 이러한 문화들, 그런 것들을 공론화를 했는데 그때 일어나고 나서 10월에 경찰청에서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교내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중 하나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형사 절차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진술을 하고 싶냐는 문항보다도 부모에게 확인을 받고 왔냐는 문항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사실 부모라 하더라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사실상 부모 동의를 받지 못하면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초조했던 거예요. 그런 과정도 거치면서 점점 편을 잃어간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무엇보다 지역에서 스쿨미투를 한다는 것이 이제 인맥이 좁다는 환경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다녔던 곳은 사립재단에서 인원 수가 많지 않아요. 학급 수가 다섯 학급에 총 학생수가 140명이 조금 넘고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반경이 겹치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반경이 겹쳐서 학교와 학원, 종교까지 다 겹치는 바람에 사실상 엄청나게 보수적인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급 학교를 진학할 경우에도 다 비슷한 곳을 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는 게 특정되는 순간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트위터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익명이고 누구인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잘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점점 갈수록 누구인지 찾아내기 시작하고, 점점 나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나타나면서부터 동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내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 스쿨미투 같은 경우에

는 저도 처음 해봤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가해교사가 형사재판에 불려나가고 나서 했던 주장이 그거였어요. '나는 무고하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때 증거를 제출했던 것들이 개인 사생활과 같이 다녔던 동료들한테 진술을 받은 거예요.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더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거죠. 저한테 왔던 질문 중 하나가 저는 피해자 진술을 받으러 갔었는데 저한테 왔던 진술 중 하나는 “정말 이 글을 네가 썼냐”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 썼다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고 외부 단체에서 저는 활동을 했었으니까 외부 단체에서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어야 했고 증명을 했어야 했어요.

사진 – 정운

이걸 계속 겪다 보니까 계속 내가 이 자리, 여기에 있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 이상한 일이어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항상 입증을 하고 납득을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재판 과정 내내 저는 항상 긴장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막상 재판이 다 끝났어요. 재판이 다 끝났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미투를 할 때 모두가 그렇듯이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구호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때 상상했던 건 이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잘 살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잃었고, 저는 보통의 일상과 너무 다른 길을 걷게 되니까 걷잡을 수 없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일상에 대한 고민을 항상 받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얘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정말 다른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뭔가 저 혼자 고민을 떠안고 있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권수정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권수정입니다.

금속노조는 2001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2004년에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이 처음으로 제소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가 저였고요. 쟁점은 2차 가해였습니다. 당시 우리 조직의 규정에는 2차 가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아니죠? 2004년입니다. 중집, 중앙위에서 2차 가해가 계속 인정되지 않아서 제가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동지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조직에 제소하였더니 가해자가 소속된 지부에서 피해자인 제가 소속된 지부로 공문을 보내서 이 사건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것을 2차 가해로 인정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금속노조 안에 다른 여성이 성폭력을 당해서 제소했을 때 조직의 공식 기관이 진상조사를 하기도 전에 성폭력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어떤 피해자가 무서워서 말할 수 있겠나? 이 얘기는 즉 성폭력을 당해도 말하지 말고 입 닥치고 살라는 얘기다. 동지들이 나를 동지로 인정한다면 2차 가해도 인정해 줘야 한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었고 표결을 통해서 2차 가해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의 규정이 개정되어서 2차 가해 개념이 들어갔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부 그런 것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에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폐기하였고, 사건 자체를 내 머릿속의 서랍에 넣고 문을 잠근다고 생각했습니다. 탁탁 털고 나는 이제 이것을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5년이 지났고 2020년에 저는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이 된 이후에 운동사회에 있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모임, 혹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위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만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동지들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어떻게 성폭력 사건을 제소한 피해자가 부위원장으로 승인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이 질문이 뭔지 몰랐어요. '피해자는 부위원장 되면 안 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왜 살아남았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의 사건을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2004년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저는 나에게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서랍에 넣고 손을 탁탁 턴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대의원까지 확대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이고, 금속노조의 모든 집회나 회의 등에 확대간부 참석의 지침이 대부분입니다. 2004년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집회에 참석을 하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권수정 동지 안녕하세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 저 멀리서 저를 소리쳐 부르기도 합니다. ‘권수정 동지’ 소리를 듣고 제가 소리나는 쪽을 보면 ‘안녕하세요.’ 큰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고 차가운 길바닥에 앉으려고 깔판을 찾고 있으면 자기 깔판을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건네 주고, 추운 겨울이면 저쪽에서부터 손에서 손을 건너서 따뜻한 커피가 제 손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좋지 않았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구나. 내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나는 잊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구나.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싫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고 있구나. '네가 맞아, 네가 말한 게 맞아'라고 인정해 주고 있구나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잊어버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직의 확대간부 동지들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2020년에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사진
–
정운

저는 이것을 조직의 매뉴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진상조사를 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후속 조치를 합니다. 이 과정에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대한 매뉴얼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어떻게 지지하고 응원할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표현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은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피해자가 씩씩하게 자기 얘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조건을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다음에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피해를 내가 말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지지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게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피해자가 일상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그래서 심지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더라도 반대로 나중에 시간이 지났더니 피해자는 여전히 빛나는 존재로 살아남아 있고 가해자는 사라졌더라. 그 스토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 안녕하세요? 저는 '허들을 넘는 여자들'의 에디터, 들이고요.
허 저는 허 에디터입니다. 일단은 좋은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1층에서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저희 책들은 성범죄 피해를 겪은 10명의 에세이가 1부에 있고, 2부는 대응 매뉴얼을 담은 책입니다. 작년에 들 에디터님께서 제안을 주셨어요. 거기에 '씻을 수 있는 상처'라는 단어를 써서 주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성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씻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상처를 언제 어떻게 다룰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들디터님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그때가 청주에서 2명의 중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 얼마 안 되던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들디터님하고 했던 얘기가 만약에 그 두 명의 학생 곁에 힘들지만 그래도 꼭 지나갈 거라고, 괜찮아지게 마련이라고, 우리도 괜찮아졌다고 말하는 언니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획을 하기도 했지만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가고 싶은 일상이 있는지. 어떤 게 괜찮아진 상태인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괜찮아진 건가'에 답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괜찮아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모아보자. 그러면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동생들의 곁에 매번 있을 수 있는 언니가 될 수 없다면 책을 내보자, 해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 분의 작가님이 투고 접수를 해 주셔서 만들어진 책인데.

자기만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만 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와 용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기, 현재의 삶은 어떤지 작성하기, 본인이 꿈꾸는 삶이 어떤지 작성하기. 사실 책을 구매한 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를 읽어보면 아직 책을 못 읽었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기는 했는데 트리거가 올라올까 봐 읽지 못하

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에디팅을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최대한 많이 뺐거든요. 가해자는 모두 X라고 표기를 하고 어떤 일련의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들을 넘는 여자들이거든요.

사진 – 정운

투고 접수를 받으면서 메일을 열어볼 때마다 상상해본 것 이상의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허들을 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요. 사회적 인식은 뉴스 같은 데서 사진 쓰는 걸 보면 큰 손이 그림자로 작은 소녀를 덮치려는 사진이 많잖아요. 피해자들도 사람이고 입체적으로 자기 꿈을 갖고 있고 야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할 말 정말 많거든요. 작가님들 글을 보면 여성들을 위한 신약을 개발하고 싶고 약자들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목소리도 내고 싶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단한 분들 많으십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정말 멋진 언니들이에요. 허들을 한 번에 넘지 못할 수도 있고 허들 앞에서 넘을 수 있을 수 없을지 고민할 수도 있는데 야망을 펼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그거를 보여주는 책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2부에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신고를 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라는 파트가 나와요. 사실 시중에는 신고를 한 사람들이 신고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응 매뉴얼이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데 성폭력 신고율은 굉장히 낮잖아요.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들디터님하고 고심을 해서 만들었고요. 성폭력상담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검토를 해 주셨고.

정말 중요한 건 신고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 물론 신고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신고를 하는 건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일 수 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괜찮아지는 것 그

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일상을 누리고 싶을 때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속도와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 레일을 끝까지 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예스24 이런 곳에서도 책을 팔고 있는데 순식간에 여성젠더 1위 찍고 그랬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만들 때는 힘들었지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덕분에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되었는데 여전히 사실 어떤 사람들은 미투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며 할 말 다하잖아요. 진짜 무서우면 말 못하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책을 통해서 피해 당사자의 말하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나대고 더 많이 설치고 그런 것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미투가 무서워서 허튼 말 더 하지 못하게 더 많은 언니와 동생들이 내일을 위해서 무섭도록 달리고 쉬고 허들을 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들 멋진 언니들 잘 보고 계시죠?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서로에게 다 멋진 언니 다 모여 계신 것 같은데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만난 이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통질문을 준비했는데요. 피해자의 일상회복이라는 좌표 혹은 목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조건과 환경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이 계속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팀에게 이 질문을 먼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 답을 권수정 선생님께 먼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메뉴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한 명의 피해자가 소중한 경험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변치 않는 좋은 경험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권수정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피해가 있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해가 지난 다음에도 나를 동정하고 미래를 낙관하고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금속노조에서 최초로 성폭력 사건을 제소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두 번 제소한 유일한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한 번만 발생하고 지나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두 번째 기회까지 온 거죠, 심지어. 보통은 한 번 피해자가 되면 사라지는데.
첫 번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훌륭한 많은 동지들의 이야기로 살아남았다면 두 번째 피해를 언어성폭력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이 좌절하고 내가 여기서 계속 운동을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2차가해라는 개념을 조직이 규정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8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성폭력사건을 제소했더니 여전히 똑같이 2차가해를 하는구나. 얘네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 이런 데서 살

아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때 저를 일으키게 해준 건 가해자가 너무 뻔뻔스러웠어요. 너무 잘 다니니까 그거를 제가 전해 들으니까 방에 한 6개월을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저 새끼가 뻔뻔스럽게 다니는데 왜 나는 누워있어야 돼? 이러면 일어났었죠.

성폭력은 제소하는 순간부터 피해자의 스토리와 가해자의 스토리의 경합입니다. 피해자가 당연히 마땅히 주눅 들고 목소리도 조그맣게 내고 까만색 옷을 입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이런 피해자로만이 아니라 그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직이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일상으로, 그러니까 성폭력사건이 있을 때 말고 가해자 처벌하고 손 툭툭 털고 조직이 끝내줘 그거 말고 어떻게 일상적으로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씩씩한 피해자가 아까 허들 만드신 동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권수정이 두 번의 피해자가 되고 나서 두 번째 피해자에서 나올 때 제가 마음먹었던 거는 뭐냐 하면 나처럼 외로운 피해자를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되었을 때 결심을 한 것은 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갑질하는 권력을 막고야 말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되는 것을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직과 사회와 메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피해자를 지지하고 응원해야 돼, 라는 것으로 만들어놓을 것인가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계신 동지들께도 보고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 매뉴얼 나오면 저희한테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은 조직들에서 이런 메뉴얼을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실제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너무 필요한데 그 힘을 그 권력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좋은 소식을 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연님, 아 들디터님의 순서군요. 들디터님께서는 피해자의 일상회복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들 저는 단언컨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피해를 당한 이후로 한동안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가해자가 저를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공포 때문에 올바르게 생각을 못했었던 시절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피해 사실을 말로 꺼내지도, 몇 년 동안이나 제가 청소년 때 피해를 당했는데 몇 년 동안이나 피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었고 저는 심지어 제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가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망을 한 뒤로도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세상과 분리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저에게는 공포감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간이 아주 길었어요. 제가 올바르게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고 내가 말을 하고 다녀도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까지는 가해자가 사망을 하고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사망을 했는데도 이렇게 똑바른 생각을 하기까 – 똑바른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 저의 피해사실 이야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옆

방에 살기도 하고 가해자가 한 교실에 있기도 하고 한 직장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엄두도 안 나실 것 같아요. 제가 짐작도 못할 만큼 공포심에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피해자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은 가해자와의 분리, 가해자가 멀어져야하는 게 맞겠지요. 피해자는 일상에 계속 머물고 가해자가. 저 같은 경우가 최고겠지요. 저 같은 경우는 세상과 분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 정운

사회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는 게 사실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라고 우리가 되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먼저 되면 일상회복에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연님이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저희가 사전모임을 할 때 주연님이 말씀하셨던 키워드가 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일상회복을 위해서 시간과 사람이 되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주연 우선 일상회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가 저한테는 일상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을 하면서 조각이 났었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인스타그램에 친구랑 저녁 먹자, 올렸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가해교사를 도와줬던 선배들이 뭐라고 했었냐 하면 얘네 선동한다고 했었어요, 단순히 저녁 먹자는 건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무슨 약속 하나를 못 잡겠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이야기지만 자우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우림 콘서트가 한 번도 안 열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가고 싶은데 약속을 못 잡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진
–
정운

그래서 직시를 하게 됐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 회복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제가 했던 일상회복은 가해교사만 쏙 빠진 학교생활이었거든요. 그 사람만 쏙 빠지고 나는 이제까지 다니던 사람들과 함께 잘 다니고 그래서 과거로 회귀하는 거에 잡혀있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저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바뀐 뭔가 지금을 살자라는 다짐을 가지게 된 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 혼자 고민하게 되고 매여 있게 되는데 그 옆에 꾸준히 지켜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친구가 그랬고 지지모임에 있었던 분들도 그랬고 그렇게 하나하나 지나오다 보니까 20살이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 20살을 맞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20살이 돼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일상생활에서 별별 약속을 다 잡고 다니고 정말 극단적으로 충동적인 짓을 벌이고 그런 일을 보니까 사람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사회자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워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그때 그대로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들이 그분들에게 닿아서 – 기대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일상은 아니더라도 지금에 있는 내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이야기들을 계속 어떤 기록물이든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앞 세션들에서 너무 주옥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요. 제가 이 세션 시작하기 직전에 원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플로어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대신 수정해서 조금씩만 조절해서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도 계시고 부산에서 오셨던 분도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뭔가 내가 이야기할 때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일상회복에 대해서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카메라가 돌아가서 본인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아, 이번에는 카메라를 촬영하지 않고 그냥 저희를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여자3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나비라고 하고요. 오늘 신청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다 주옥같은 말씀들을 패널 분들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성폭력에 대해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딸에게는 나와 같은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서 했고요. 그 당시에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분들도 계셨는데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저의 이야기가 저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데 누군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다만 지금도 제 옆자리에 있지만 저도 알고 보니 그냥 친구인 줄 알았더니 활동가셨던 분이 저한테 계속 이틀 동안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지금도 또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합니다만 (웃음) 그때는 제가 혼자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말하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다음 날 말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저 혼자 이야기하지 않고 미투 이후로 많은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이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책도 쓰기도 하고 함께 만나서 웃기도 합니다.

일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일상은 그 허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말하고 나서 정말 행복해졌고요. 말하고 나서 제 자신을 알게 됐고요. 기억에 없었던 제가 기억을 찾기 시작하면서 직면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상 회복이라는 거는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또 저는 기억 이전으로 돌아가도 기억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현재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말할 수 있는 이 순간순간 그리고 말들과 글들과 - 그런 말 있죠. 온도와 습기 분위기... 이런 거 다 모아서 - 저는 또 그 다음에 미투의 결산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내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의 미투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들은 너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억압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푸른나비의 '친구'라고 믿었던 '활동가'가 옆구리를 쿡쿡 찔렀군요.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옆구리를 쿡쿡 찔리신 분 안 계신가요?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카메라를 비춰드려도 괜찮을까요?
참여자4 네, 괜찮습니다.
사회자 상황이 괜찮으시면 카메라로 비춰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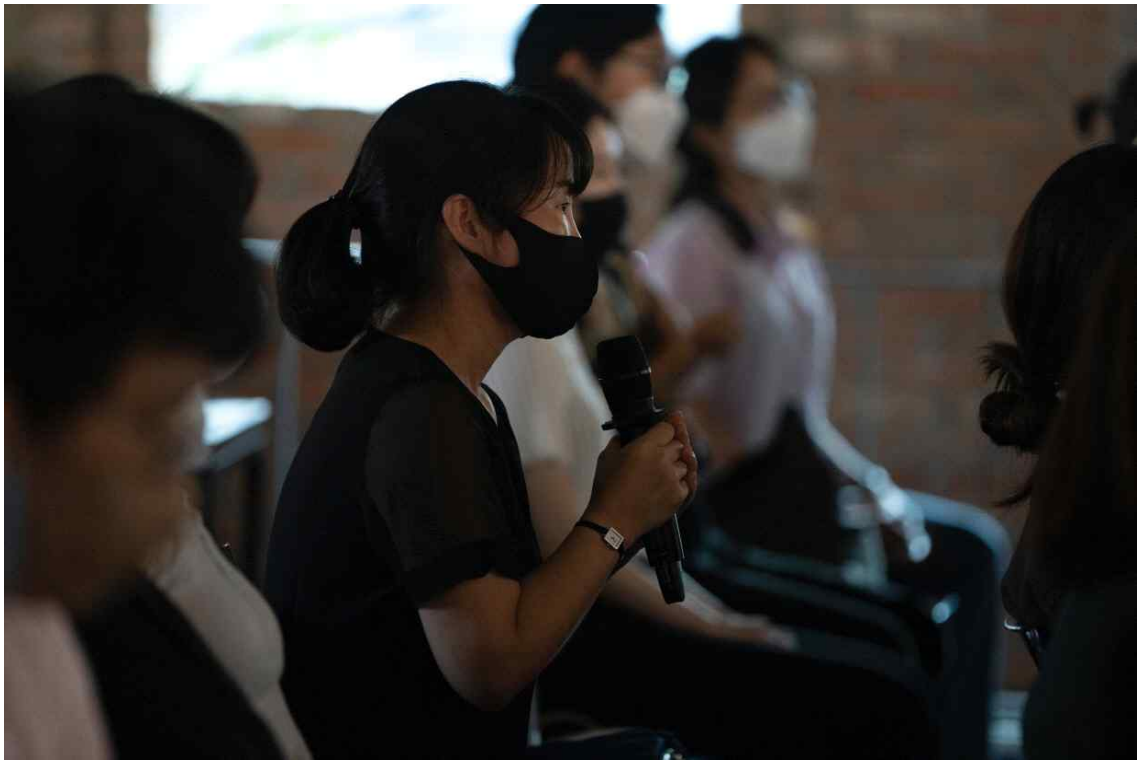


사진 - 정운

참여자4 네, 저는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왔고요.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을 때를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날 카페에서 같은 공간 안에 있었어요. 그때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그녀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좋았거든요. 그냥 일반관객으로서.

그런데 그때 그분이 카페에 계셨을 때 저는 두 가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분에게 나는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시선을 보내는 것 자체가 따가운 일이 될 거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결정을 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비보를 뉴스를 통해서 접했죠. 그리고 나서 한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냥 어제 이야기해줄 걸. 나는 당신을 지지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줄 걸, 고민을 많이 후회를 많이 하다가 잊고 살았죠, 다시.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주변에 성폭력피해자들을 간간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진실 씨와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저를 몰라요. 저는 알지만. 그랬을 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가가야할까를 고민을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개인의 상황과 극복의 정도에 따라서 주변의 지지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다가가야하는지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회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세션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서 주변의 지지자와 연대자 그리고 앞에 세션에서도 많이 말씀들 나눠주셨는데요. 주변에 연대하는 사람들,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존재가 일상회복 이후의 피해에 대한 해결과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질문해 주신 것은 지지와 연대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너무나도 좋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 대답을 어떻게 누가 먼저 해 주시겠어요? 네, 주연님. 너도 나도 답을 먼저 하겠다고.

주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제 경험에서 기반된 거라서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창 재판에 몰두해있을 때 제발 누구라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를 테면 멋지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네가 하는 거 너무 필요한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같이 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가 힘들 거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랑 친구들도 그래서 사실 갈등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저도 힘든 거를 걔가 알고 걔가 힘든 거를 저도 알아요. 서로 말을 안 하니까 어림짐작해서 멀어진 거예요, 되려.

그래서 저는 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한창 너무 힘들었을 때는 길 가다가 누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사실 저는 편지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편지를 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권수정 제가 아까 매뉴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매뉴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요. 만약에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나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다면 당신이 어떻게 말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교육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요. 그 사람이 가장 믿는 사람이 너고 네가 뭐라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답을 알려줄게. 고민하지 말고 내가 네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해줄게. 나랑 같이 노동조합도 가고 법원도 가고 경찰서도 가자, 라는 말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을 많이 하는 것을 당신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참 희한해서요. 한 번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랑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과 태도만으로 저는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 비난하고 있는지를 눈치 채는 능력, 희한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빛과 태도만으로도 지지와 응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사진 – 정운

또 하나는 꼭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라는 이야기를 모르게 전해줘도 되고 꽃 한 송이를 책상에 놔줘도 되고 저는 그게 무슨 의미,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누군가가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 같이 점심을 한번 먹어도 되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너의 옆에, 너의 존재 옆에 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도 되고 그것은 나를 오픈시켜도 되고 오픈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가해자들이 매우 용감하게 피해자를 자기들끼리 연대하면서 함부로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피해자에게 연대할 때 조심하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해자들은 하나도 재지 않고 막 폭행해요. 그런데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재고 저것도 이야기를 하고 무식하게 용감하게 지지하고 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 정운

허　짧게 덧붙이자면요. 사실 푸른나비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모티브가 되었어요. 모여서 쓸 수 있구나, 그게 굉장히 힘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위로와 용기를 받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리고 그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마음은 같이 꼭 전달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　저는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친구가 저에게 와서 나 지금 조금 전에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울면서 막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 일은 무작정 저는 제 친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아주 분하고 화가 나니까 무작정 그 친구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 갔는데 여청과에 갔지요. 여청과에 가서 우리 수사하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경찰서에 앉혀서 세 명의 경찰관님이 서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해서 오해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친구도 그 과정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잘못했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냥 그 친구한테는 위로의 말이나 포옹이나 괜찮다는 말 한마디 손 잡아주는 거나 옆에 있어 주는 것 맛있는 거를 해줬으면 친구가 더 위로를 받았을 텐데, 괜히 내가 오버해서 경찰서에 데리고 가고 이런 약간의 폭력적인 수사과정을 겪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때 이후로부터는 먼저 물어봐요. 네가 그래서 나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너는 네가 제일 원하는 거를 이야기해달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신고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 '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물어보는 게 우선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분마다 어떤 위로, 어떤 공감, 어떤 지점,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가 다 다를 거라서, 그래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토대로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혹은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원할까, 뭘 필요로 할까 같이 얘기를 나누고 눈빛을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눈치 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방법, 위로하는 방법이나 연대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또 질문이든 어떤 이야기든 마이크를 들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 정운

참여자5 저도 같이 부산에서 왔고 온 김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피해자 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셨으면 되게 위로를 받는 자리가 되었겠다, 그리고 힘을 진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겠다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 제가 이걸 마음에 담아가서 얘기를 해 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하면 좀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진짜 초반에 상담소에서 일을 하면서 말하기 대회라는 걸 경험을 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 그걸 한 번 하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많은 피해자분들이 자기 이야기가 경청되는 경험이라든가 공감받는 경험이 많이 없었

구나 하는 생각. 60명 있는 자리에서 60명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네가 피해를 받았구나, 힘들었겠구나'라는 게 눈빛으로 혹은 작은 신호로라도 눈빛을 주고, 눈치를 주고 이런 거에 위로를 많이 받으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피해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많은 위로를 받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2차 피해라든가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피해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계셔서 저도 굉장히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저희 아까 그 '이상했던' 행사, 성폭력생존자 말하기대회 저희 상담소에서 되게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투운동이라는 그 흐름은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제는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미투운동이 힘을 받고 이어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미투운동이라는 말이 좀 예전 말, 한 시대를 지나간 말처럼 들리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미투를 기억하고 여전히 본인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고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고, 그걸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다 여기 모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고 해요. 저희가 아마도 이 기록과 이런 유튜브를 남겨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일상 회복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 전진하고, 좋은 언니들 주변에서 더 발굴하고 내가 좋은 언니가 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의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순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순서는 아까 저희 살짝 티저가 나갔죠? 싱어송라이터 이랑 님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시 25분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쉬는 시간이 너무 짧죠?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지만 공연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는 25분에 딱 도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알차게 사용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스를 보실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부스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싱어송라이터 이랑

사진 - 수수

안녕하세요? (박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8월 6일에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가서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2주 정도 되었는데 아직 기침이 계속 잔기침 같은 게 있고 잠이 많이 오고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어서 이번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중요한 여성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은 그래도 격리도 해제되었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환호 박수) 그리하여 약간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퀄리티 높은 마음으로 공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신의 놀이'라는, 2집 〈신의 놀이〉 앨범의 타이틀 곡입니다.

신의 놀이

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 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나요
때로는 사막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좋은 이야기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나요

요즘도 무섭게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고 계시는가요
중년의 나이에도 절망과 좌절의 무게는 항상 같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이야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그들의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나요

성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에는 모두가 집을 떠나면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단순한 영웅은 사람들을 대신해 제물로 바쳐져 죽음을 맞고
사람들은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지요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좋은 이야기는 향기를 품고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죠
모든 이야기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만들어지는 비극
희극은 제물이 흘리는 피를 받는 입구가 넓은 모양의 접시

어쩌면 난 영화를 만드는 일로
신의 놀이를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
어쩌면 난 영화를 만드는 일로
신의 놀이를 하려고 하는지도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좋은 이야기를 통해 신의 놀이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박수) 감사합니다. 메아리가 1층에 있네요. (웃음) 이렇게 공연장 아닌 곳에서 공연을 하면 쉽지는 않은 환경이긴 한데요, 일을 하기에. 그런데 여성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하시는 분들이 매번 초대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저에게 있었던 모든 피해를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해도 이런 곳에 와서 노래하는 것으로 큰 위안을 저도 받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계속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다음 곡은 3집 앨범에 수록된 '잘 듣고 있어요' 라는 곡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이게 어떤 쓰임이 있을지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즐거웠다 하고 기뻤다 하고 눈물 흘렸다 하고
내게 많은 사람들이 건네는 인사말은 잘 듣고 있어요
날 만난 적 없어도 만나지 않아도 처음 만나도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나요 어떤 시간에 어떤 순간에 왜 이 노래를
듣고 있나요 아무 것도 아닌 질문 밖에는 없는 이 노래를
또 듣고 싶나요 어떤 시간에 어떤 순간에 왜 이 노래를

사진 – 수수

바다의 왕이 큰 병이나 고칠 방법이 없대요
내 친구 해미는 얼마 전에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바다의 왕을 고칠 유일한 방법은 토끼의 간이래고
유리의 강아지 담이의 암은 완치가 되었다죠
거북이는 용왕의 청으로 토끼를 잡으러 나섰고
한다는 세계를 떠돌아다니다 내 옆에서 코를 골죠
아이고 토 선생님 이렇게 만나 봬 영광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당연히 잘 지내셨겠죠
거북이 선생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소
내 평생 쫓기고 숨어 마음 졸이는 하루하루인데
거북이와 함께 바다에 간 토끼의 간을 노리는
용왕 앞에서 토끼는 꾀를 내 이렇게 말을 하죠
누나 저 군대 가기 전까지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싶어요
아이고 미리 말씀하셨으면 간을 가지고 오는 건데
누구는 목숨을 찾고 누구는 사랑을 좇는 거겠죠

잘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기억하고 외우고도 있죠
의미가 있는 이야기는 듣고 또 들려주고 싶어요
잘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이게 어떤 쓰임이 있을지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즐거웠다 하고 기뻤다 하고 눈물 흘렸다 하고
내게 많은 사람들이 건네는 인사말은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나요 잘 듣고 있나요
잘 듣고 있나요 잘 듣고 있어요

(박수) 잘 듣고 있어요, 라는 노래는 제가 저만의 심리치료 방법으로 판소리를 취미로 2년 정도 배웠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배운 거거든요. 2주에 한번씩 가서 소리를 실컷 질렀고 북도 세게 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동네에 오며가며 보면 민요교실 같은 작은 레슨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한달에 5만원 내고 판소리를 취미로 했는데요. 수궁가가 가장 재미 있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토끼가 어쨌든 스토리 안에 사회적 약자로서 이런 저런 고난의 순간을 꾀를 내서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재밌어서, 육지에서도 바닷속에서도 여러 부당한 일들을 마주하면서도 꾀를 내서 살아가는 게 저에게 용기를 줬는데요. 한편으로는 아 왜 다 개인이 이걸 꾀를 내서 해결해야 할까? 라는 그런 답답함도 있으면서도. 아무튼 제일 좋아하는 노래여서 수궁가 토끼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부를 노래는 앨범에는 수록하지 않았고 음원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우리의 방'이라는 노래이고요. 버지니아 울프의 유명한 그... 말이 있잖아요? 뭐더라? (웃음) 자기만의 방과 얼마가 필요하다.. 다들 아시죠? 그 책을 보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자기만의 방을 가지라는 거지? 연 500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을 가지면 작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돈과 방은 어떻게 가지는 거지? 저와 제 주변 친구들의 방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작고 시끄러운 방만 있구나 하는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방

나는 눈앞의 경계선을 넘어서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
들어는 봤지만 한 번도 본적이 없는
활기로 가득 찬 세상과 도시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나와 닮은 사람들을 어디선가 만나고
닮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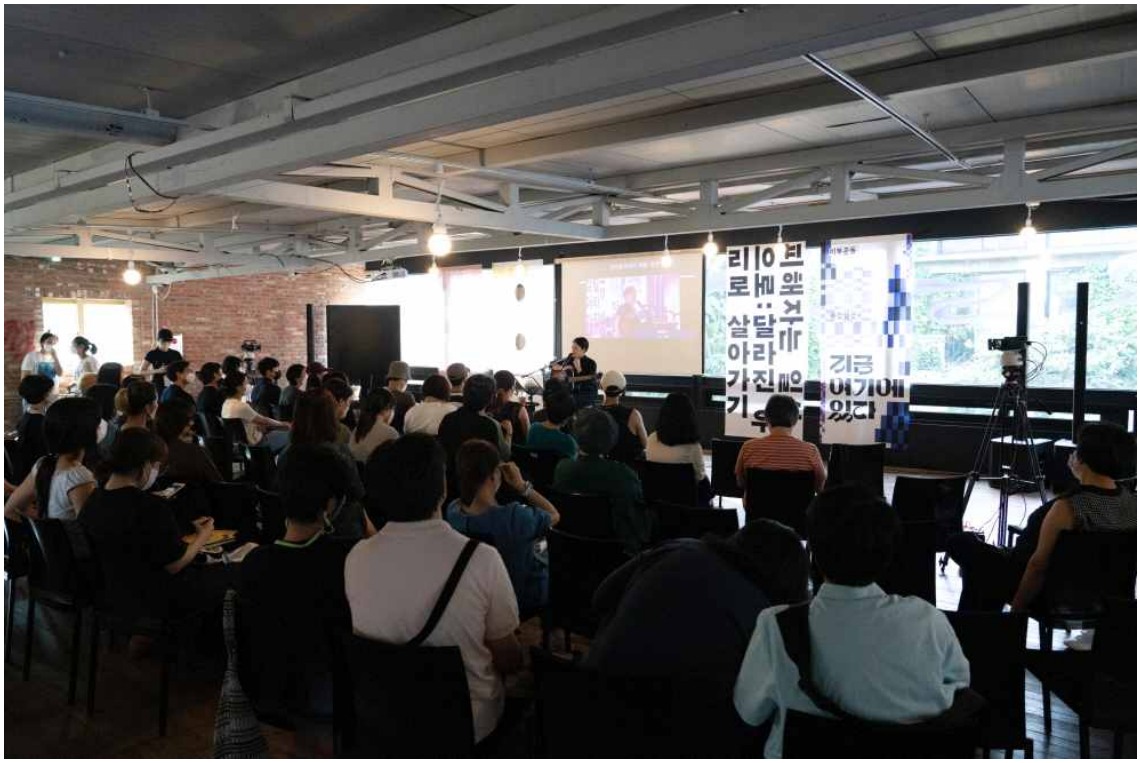


사진
–
정운

우리의 이런 바람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런 바람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의 방은 너무 작고 시끄럽고
우리에게 돈은 항상 멀리있지
우리의 방은 너무 작고 시끄럽고
우리에게 돈을 항상 멀리있지
우리의 방은 너무 작고 시끄럽고
우리에게 돈은 항상 멀리있지
우리의 방은 너무 작고 시끄럽고
우리에게 돈을 항상 멀리있지

넓은 곳으로 날아가려해
넓은 곳으로 나아가
넓은 곳으로 날아가려해
넓은 곳으로 나아가

우리의 방은 너무 작고 시끄럽고
우리에게 돈은 항상 멀리 있지
우리의 방은 너무 작고 시끄럽고
우리에게 돈은 항상 멀리 있지

우리의 방
우리의 방
우리의 방
우리의 방

(박수) 가사도 나오고 있나요? 제가 실수로 순서를 잘못했는데... 상관.. 괜찮겠죠? 원래 한곡을 다른 곡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곡은 '어떤 이름을 가졌던 이름을 가졌던 이의 하루를 상상해본다' 라는 곡인데요 지금 하겠습니다. 이 곡은 3집에 수록한 곡이고 -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가해자를 어느 날 갑자기 마주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 사이에, 붐비는 인파 속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어떤 나만의 떨림 같은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이고요. 화자가 꼭 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출이 어려운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사진 - 정운

어떤 이름을 가졌던 사람의 하루를 상상해본다

어떤 이름을 가졌던 사람의
하루를 상상해본다
버려진 빈 병을 유난히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어떤 사람을
갑자기 터져 나오는 재채기를

참을 수 없어 찡그린 미간을
긴 코트에 무거운 모자를 쓰고
문을 나서는 신발의 무게를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죽을 퍼 담는 떨리는 손을
손과 함께 떨리며 변하는
그릇의 무게를 상상해본다

빈 그릇을 들고 한 방향으로 걷다
맞은편에서 날아 들어오는
커다란 소리에 놀라
몸을 틀어 뛰기 시작하는
어떤 이름을 가졌던 사람의
어떤 하루를 상상해본다
미로처럼 복잡한 숲속으로
서슴없이 뛰어 들어가는 다급한 다리를
비탈 끝에서 천천히 속도를 늦추며
담배를 꺼내 무는 부르튼 입술을
파괴적인 소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길을 찾아 돌아가려는
어떤 이름을 가졌던 사람의
어떤 혼잣말을 상상해본다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알까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말할 수 있을까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알까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이건 나밖에
나밖에

(박수) 감사합니다. 너무 환자가 노래를 하고 있으니 보시는 분들도 안쓰러운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웃음) 이제 마지막 곡으로 제 곡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한 '환란의 세대'를 불러 보려고 합니다. (환호) 환란의 세대가 유튜브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댓글에 많은 사연이 있어요. 비판도 있고요, 자살 조장하는 곡을 공인이 불러서 되겠느냐 비판도 있고, 이 노래가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노래 중에 가장 격한 사랑노래다, 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원래 사회에서 알아서 평가받고 그런 거니까 (웃음) 저는 사랑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 수수

환란의 세대

또 사람 죽는 것처럼 울었지
인천공항에서도 나리타공항에서도

울지 말자고 서로 힘내서 약속해놓고
돌아오며 내내
언제 또 만날까
아무런 약속도 되어있지 않고
어쩌면 오늘 이후로
다시 만날 리 없는
귀한 내 친구들아
동시에 다 죽어버리자

그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선수 쳐버리자

내 시간이 지나가네
그 시간이 가는 것처럼
이 세대도 지나가네
모든 것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넌 화를 내겠니
모든 것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넌 슬피 울겠니

우리가 먼저 죽게 되면
일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없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되고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고
편지도 안 써도 되고
메일도 안 보내도 되고
메일도 안 읽어도 되고
목도 안 메도 되고
불에 안 타도 되고
물에 안 빠져도 되고
손목도 안 그어도 되고
약도 한꺼번에
엄청 많이 안 먹어도 되고
한꺼번에 싹 다 가버리는
멸망일 테니까
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 너무 좋다
아아아 아아아 아아 깔끔하다
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아아아

(박수) 감사합니다. (환호, 앵콜) 앵콜... 해도 되는 건가요? 주최 측 선생님들의... (네! 박수)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세요. 목 안 아픈 노래요? 가족을 찾아서요? 좋은 생각입니다.

가족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그 노랠 찾아서
내가 살고 싶은 그 집을 찾아서
내가 사랑할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되고 싶은 가족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그 노랠 찾아서
내가 살고 싶은 그 집을 찾아서
내가 사랑할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되고 싶은 가족을 찾아서

나는 언젠가 후회하게 될까
오늘 엄마의 전활 받지 않은 것
내 평생 아빨 용서하지 않은 것
키우는 고양일 세게 때렸던 것

나는 언젠가 후회하게 되겠지
오늘 엄마의 전활 받지 않은 것
내 평생 아빨 용서하지 않은 것
키우는 준이칠 세게 때렸던 것

내 안에 있는 그 노랠 찾아서
내가 살고 싶은 그 집을 찾아서
내가 사랑할 그 집을 찾아서
내가 되고 싶은 그 가족을 찾아서

내 안에 있는 그 집을 찾아서
내가 살고 싶은 그 집을 찾아서
내가 사랑할 그 집을 찾아서
내가 되고 싶은 그 가족을 찾아서

이건 뭔가 되게 크게 잘못 된 것 같아
이건 뭔가 되게 크게 잘못 된 것 같아
이건 뭔가 되게 크게 잘못 된 것 같아
잘못 된 것 같아

이건 뭔가 되게 크게 잘못 된 것 같아
이건 뭔가 되게 크게 잘못 된 것 같아

이건 뭔가 되게 크게 잘못 된 것 같아
잘못 된 것 같아

내 안에 있는 그 노랠 찾아서
내가 살고 싶은 그 집을 찾아서
내가 사랑할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되고 싶은 그 가족을 찾아서

사진
–
정운

폐회사

안녕하세요. 〈미투운동 중간결산 : 지금 여기에 있다〉 기획팀 산, 동은입니다.

자리에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앞 뒤 옆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아까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가벼운 목례도 좋고, 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하이파이브도 좋고요! 서로 바라보며 투쟁을 외쳐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인사를 나눠볼까요?

그럼 몇 가지 안내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지정된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하여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스 프로그램은 아쉽게도 모두 종료되었지만, 일부 책은 모금함 참여를 통해 리워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람지커피가 완판되었는데요, 람지커피의 김지은님이 책 두권을 서울 외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오신 분들에게 두 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사건 다른 분이 준비한 선물도 있어요. 안내부스에서 용기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투운동 중간결산 : 지금여기에있다〉 참여한 분들의 평가와 소감을 나눠주세요. 문자메시지로 평가 설문 링크가 전달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후속 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한정 특급 리워드, 미투운동의 힘 있는 통찰이 가득 담긴 단행본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미투운동이 건넨 말을 책갈피로 소장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 늦지 않았습니다! 나가시는 길 행사장 곳곳에 보이는 큐알코드를 통해 모금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더 보기〉란이나 채팅창을 통해 모금함에 참여하시면 택배로 리워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모금함 참여하시고 리워드도 선택하신 분들은 후원 후 보내드리는 안내에 따라 받으실 도서와 리

워드 수령 방법을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워드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후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투운동 중간결산,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라며, 연대의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전시 + 부스

사진 _ 수수, 지윤

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 있다

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 있다
2022. 8. 20(토)

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 있
전시
#미투운동이 당신에게
@인사동 KOTE 정원
부스
반성폭력 도서·굿즈 판
람지커피
성폭력 사건 지지·연대
불량언니작업장
전체 행사
14:00
행사안내
14:05
미투운동중간결산
: 1664일, 달라진 질문
14:15-15:00
성찰빼고 돌아올 때
: 가해자 처벌
공동체의
15:10-16:10
16:20-17
17:2

만팍 모든 경험
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 있다
KOTE 3층
무료전시

우리
우리들의
연대가
너희의

#
ME
TOO
#
WITH
YOU

어린
여자아이들은
원히
지 않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들의
연대가

어린
여자아이들은
원히
지 않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지금 여기에 있다

후원회원 가입 이벤트
불량언니 작업장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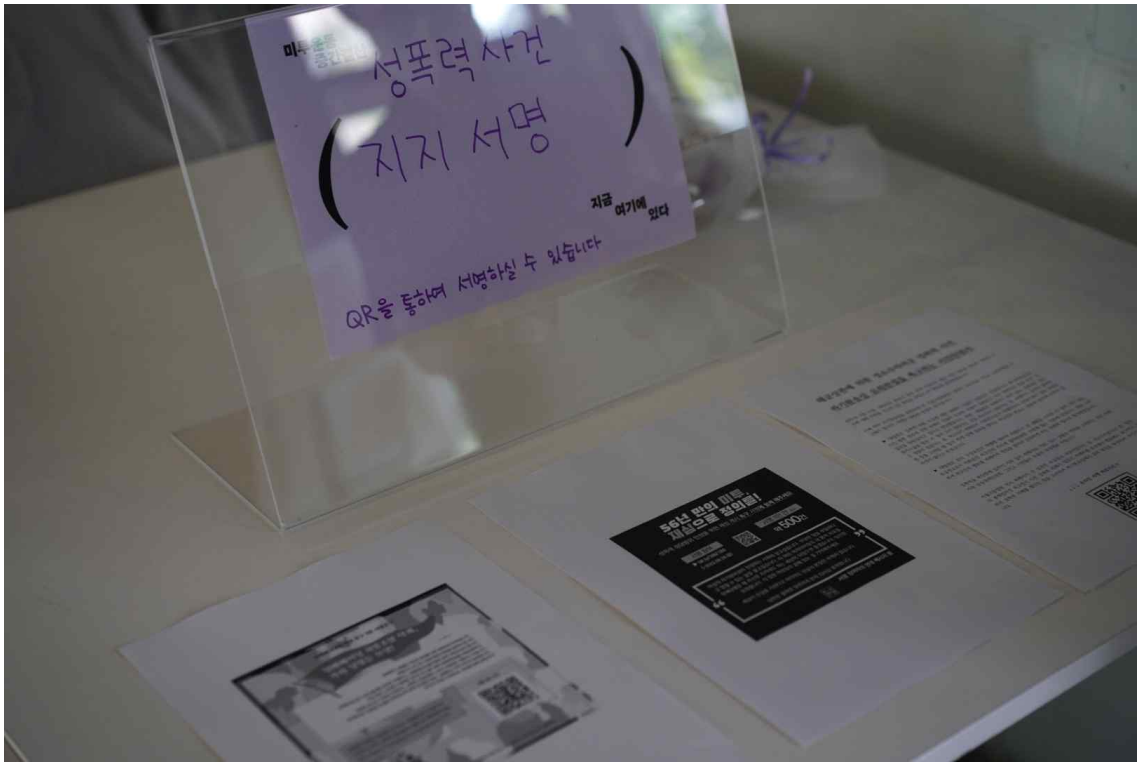
여성노동자, 반격이다

혹시, 원하시면
허디타와 들디타의
사인도, 해드립니다.
허들을 넘는 여자들
FIGH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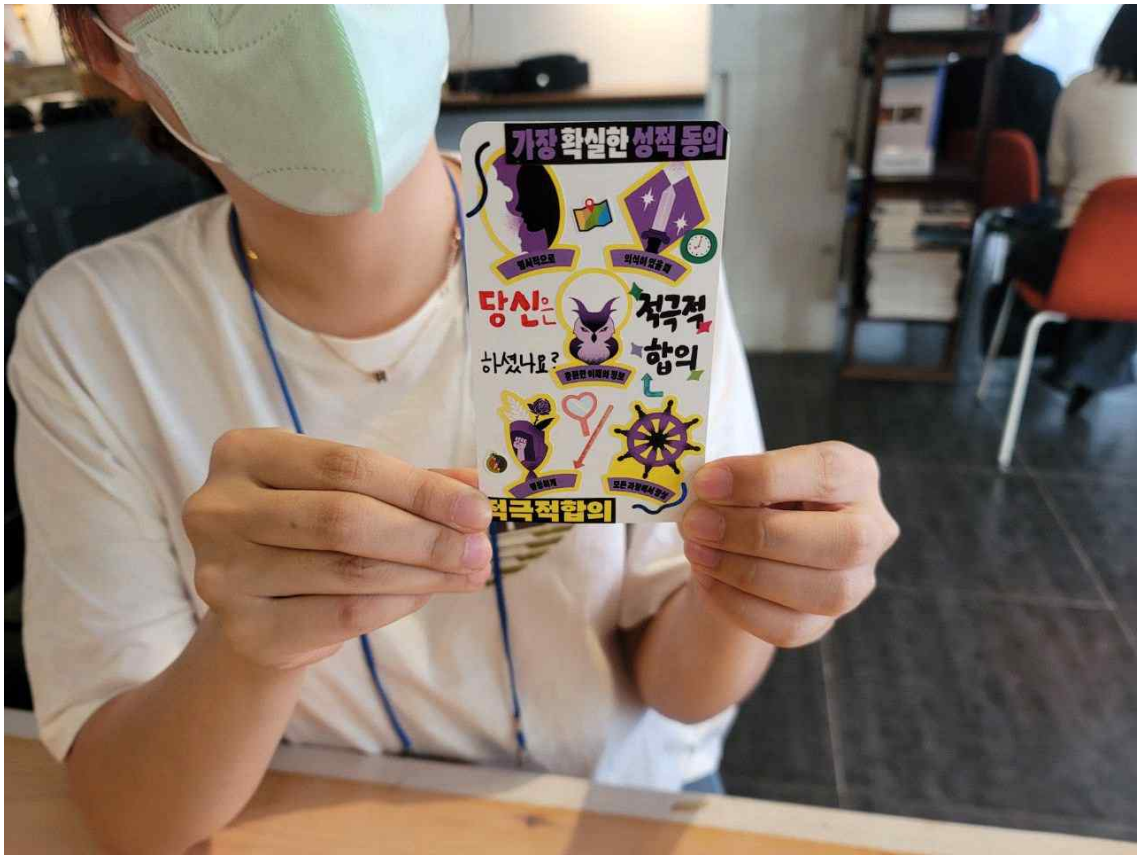
김지은 입니다
김지은 입니다
김지은 입니다
김지은 입니다

3
조직
떠어놀며 운동장의 기웅기를 바꾸기
떠어놀며 운동장의 기웅기를 바꾸기 (백희원 지)
₩6000원 ▸ 15,300원
책 구입 및 후원
기업은행 001-843341-04-019(엔비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펀딩)

우리들의 해방일지


성폭력사건
(지지 서명)
지금 여기에 있다
QR을 통하여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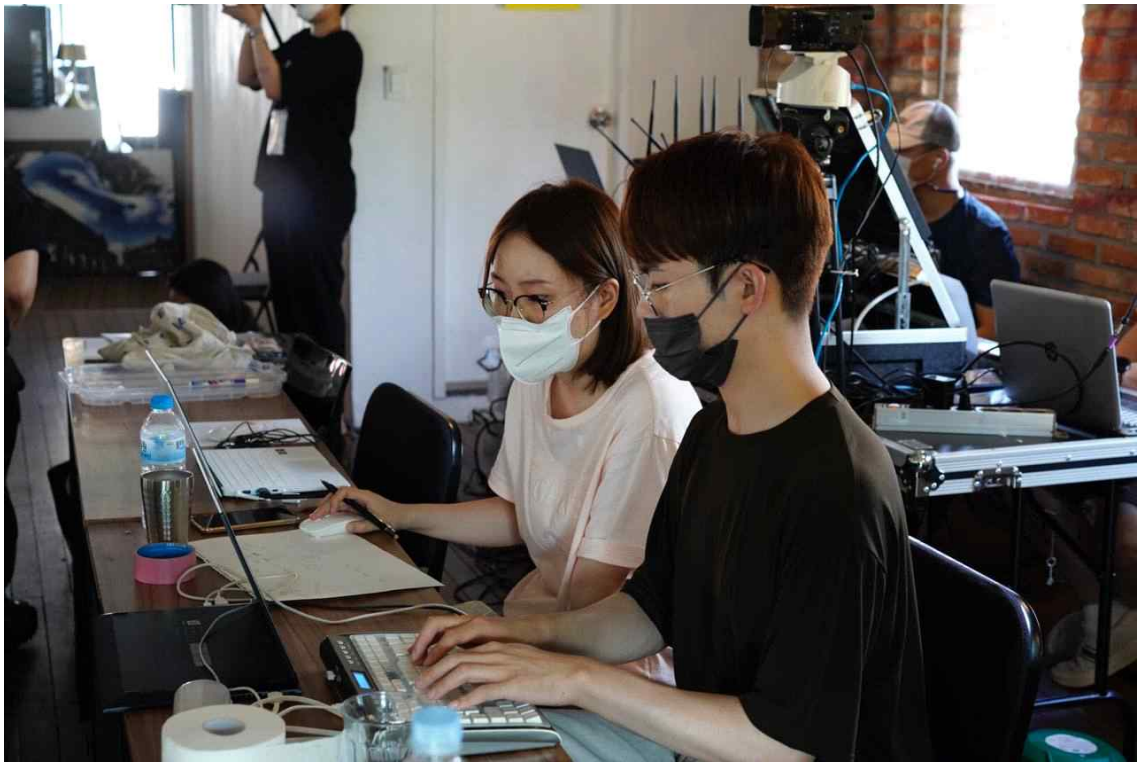
과꾸 참여방법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당신은
하셨나요?
적극적
합의
적극적합의

미투운동 중간결산 : 지금 여기에 있다
#2540-1991
권당 3,000원
문자후원에 참여해주시면, 음료를 드립니다!
- 연잎식혜(언니네 텃밭/ICE)
- 콜드브루(람지커피/HOT, ICE)
※ 물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 있다
2F

#METOO
#WITHYOU



미투운동
중간결산

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 있다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_ 감이 경진 낙타 닻별 도경 동은 란 산 상아 수수 신아 앎 오매 유랑 은희 지희 파랑 해주
자원활동가 _ 강승희, 도롱뇽, 민지, 선민, 소연, 이재정, 정인영, 정재원, 지니, 지윤

함께한 이들 FDSC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고혜림 김리원 김수영 김헵시바 도한결 박영신 성윤주 신인아 안지경 양민영 양으뜸 양지은 이지원 장지영 정연수 최슬기

함께한 이들 다큐멘터리 〈애프터미투〉 프로젝트팀

강유가람, 박소현, 소람, 이솜이

사진 정운, 수수, 지윤
웹페이지 임진(스튜디오임진)
문자통역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책갈피제작 포푸리
부스참여 불량언니작업장, 봄알람, 허들을넘는여자들, FDSC, 람지커피, 이미출판사, 동녘출판사, 나름북스

모금함 후원

곽상언 김나래 김동은 김두나 김미랑 김미순 김미정 김수경 김여진 김연경 김유영 김은경 김인숙 김정희원 김지은 김태옥 김태운 김하연 김헵시바 김현지 김혜정 김혜진 나희경 남성아 노미선 노지은 노혜지 류호찬 몽 박미성 박수민 박슬기 박현이 박희은 배나은 배순선 배영지 법률사무소법과치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성평등위원회 보라 부현정 사각프레스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서원 서혜진 손지은 송민지 신누리 신상숙 신순임 심성은 윤일희 이미경 이연주 이영미 이유선 이은심 이정선 이주빈 이향심 이현경 임수진 임종린 장도국 장주영 장주희 장지영 전국건설노동조합 전설아 정원경 정혜선 조지영 조현정 조혜인 진냥 진형민 차가영 최경숙 최미랑 최샘이 한보경 한은진 한재현 한준희 혜지 홍소희 황정미